

중국을 주께로

[제 12호, 1991. 5/6]

中國語文宣教會

표지사진 설명



(중국의 만리장성)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4:6,7)

목 차

- ◆말 씀
 선교의 사명 (방지일 목사) / 2
- ◆정기세미나
 중국교포 제자화 사역보고 (이경준) / 4
 중국과 북한에 성경을 (김은석) / 7
- ◆중국어로 찬양물!
 如鹿切慕溪水 / 11
- ◆중국기독교인물 소전
 최초로 사회 사업을 중시한
 훌륭한 목사 / 12
- ◆중국 기독교 토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Ⅲ) / 14
- ◆중문과 교수 칼럼
 중국 고대 “하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김학주) / 18
- ◆중국어성경공부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 / 20
- ◆사막의 단상
 『하나님은 반드시 온전히 이루신다』 / 22
- ◆중국의 민족풍물이야기
 새해와 관련있는 이야기 / 24
- ◆선교 현장에서
 방한중국교포와 하나님의 뜻 (박지화) / 26
- ◆선교하는 교회를 찾아서
 입을 넓게 연 교회(평산교회) / 28
- ◆대륙성도 간증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와 나의 도움이라 / 33
-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중국동향 / 38
- ◆회원코너
 대만, 그 작은 땅의 찬양소리 (박길순) / 45
- ◆각 부서 활동보고 / 48
-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활동 상황 / 50
- ◆기도편지 / 54

선교의 사명

(고전 9:16)



방 지 일 목사
(본 선교회 고문)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

이 말은 모든 신앙인,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과 구원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란 무서운 선언이다. 이 선교사명은 이렇게 부가되어졌다. 이는 확실한 사실인데 이 선교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召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르심이 없이는 사명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르신 자에게는 일감이 주어진다. 이런 순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 주시는 일감이 내 할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하고 사명감이라 하게 되면 그 일은 내 자신의 일이다.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망녕된 행동이다. 주님의 일은 그가 하시는 것이 원칙이다. 그의 성역을 인간이 할 수는 없다. 일을 하심에 그 일에 적당한 역군을 부르셔서 시키신다. 부르신 이에게 일감을 주신다. 이렇게 일을 감당하는 일이 사명이다.


선교라는 것은 광의에서는 복음사명이다. 국내외에 원근의 차이없이, 동족 이족의 구별 없이, 복음 사명임에는 틀림없으나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선교사명은 더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내가 전도도 정하고 민족도 정하고 선교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

선교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召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르심이 없이는 사명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르신 자에게는 일감이 주어진다. 이런 순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 주시는 일감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하고 사명감이라 하게 되면 그 일은 내 자신의 일이다.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망령된 행동이다. 주님의 일은 그가 하시는 것이 원칙이다.

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아니고 자기 일감을 자기가 하는 일인고로 자신의 일이다. 목자상으로 본다면 샅군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보내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디로 보낼 때 나는 '예' 하고 갈 뿐이다. 요나의 경우를 보라,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니스웨로 가라는 일감을 주셨으나 자기 소견대로 다시스로 갔다. 자기 작정이다. 그 곳에 가서 사명을 다하겠다 함이다. 일하는 데는 니스웨나 다시스의 분간이 없다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부르신 자가 나에게 주신 일감을 거절하고 자신의 택한 곳으로 일감을 자취한 바이니 요나 개인의 일이 되나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크신 징계로 그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크나 큰 피해를 입히고 다시 주신 일감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요나 일신상의 교훈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있어 한결같은 교훈이라 할 수 있다.

부르신 자에게 일감이 주어진다. 주신 일감을 나는 받아 그저 그 일을 감당할 뿐이다. 내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이다. 나를 스스로 속임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선교열로 불타고 있다. 실로 고무해야 할 일임에 틀림 없으나 먼저 부르심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를 부르시었다.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게 알맞은 일감이 주어진다. 그 때에 순종하고 그 일터로 나아갈 것이

다.

내가 일자리를 찾는다, 스폰서도 찾는다, 자신의 활동이 가관이다. 그리고 선교사명을 감당한다고 상당한 PR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스폰서 얻는 일에 혈안이다. 온갖 선교보고가 꾸며진다. 일시적으론 잘 지속되며 선교역사에 박차를 가하기도 한다. 대 선교사업이 벌어지나 부르심이 선재하고 주신 일감이 아닐진대 이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함을 다시 강조해 둔다. 내 사업 하면서 선교사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역을 만홀히 여김이 되는 것이다. 부르신 자에게 적당한 일감을 주시니 그 주신 일감을 가지고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는 그 일에 순종할 뿐이다. 오직 이 일이 선교사명이다. 선교비 조달에 거의 시간을 보내는 선교사도 있는데 그 선교사명이 자신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한 번 자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는 부름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을진대 선교비 조달에 내 할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뿐이다. 보내는 교회나 본부에서 할 일을 선교사 자신이 동분서주하며 임지에는 반도 못 있고 미국 등지에 거의 가 살면서 복음역사가 곧 그 일이라 생각하면 큰 착오가 아닐 수 없다. 모금이 내 할 일이 아니라 내 할 일은 주신 일감에 매달려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근자의 선교사들은 선교부의 총무인지 선교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한다. 주신 일감을 감당함으로 만족하자. 

중국교포 제자화 사역보고

이 경 준 (네비게이토 간사)

중국교포 제자화 사역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 및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중국이 1953년 공산화 될 때 기독교인수는 약 85만명이었는데 현재 중국의 기독교인수는 8천만 명 가량 된다고 한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국복음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해야만 한다.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자인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도와주시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도와 주시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1990년 12월 17-19일까지 400명 가량 예상하고 중국교포를 대상으로 CCC회관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700여명이 왔다. 저녁식사를 제공하면서 부암동 훈련원을 숙소로 삼아 3일동안 집회를 가졌는데 그 때 들었던 경비는 모두 5천 5백만원이었다. 처음에 형제자매들이 선교를 위해 헌금한 55만원으로 시작했지만 나머지는 주님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것이다. 한 형제가 마중물(펌프를 끌어 올린 때 한 바가지의 물) 역할을 한것이 계기가 되어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암동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변화가 확실한 사람 약 30명(15가정)을 한달 가량 합숙하면서 양육하기로 계획하였다. 한달 하숙비가 일인당 15만원인데 그 돈을 지불해 주기로 했다. 새벽기도와 저녁에 성경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한 후 희망자

를 물었더니 23명이 자원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처음 일주일 새벽시간은 기도회로 모였으나 그 이후에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으로 훈련했다. 다시 말하면 첫번째 한주는 메세지를 전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성경말씀을 한 귀절씩 주면서 묵상하도록 한 것이다.

저녁집회는 주로 아침의 경건의 시간에 가졌던 말씀으로 연관해서 공부했다.

1. 구원의 확신 (요일5:11-12):
구원을 Enjoy, 예수님을 Enjoy, 교제를 Enjoy 할 수 있도록...
2. 기도응답의 확신 (요16:24)
3. 승리의 확신 (고전10:13)
4. 사죄의 확신 (요일 1:9)
5. 인도의 확신 (잠 3:5,6)
6. 전도의 훈련 (중국에 돌아가 전도할 수 있도록)
7.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 ①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15:5)
 - ②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행20:32)
 - ③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롬8:14)
 - ④ 믿음에 의한 생활 (고후5:7)
 - ⑤ 사랑에 의한 생활 (요일4:11)
 - ⑥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요일1:7)
 - ⑦ 증인으로서의 생활 (벧전3:15)
 - ⑧ 후히 드리는 생활 (고후9:7)
8.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요건에 대해
9. 교회관에 대하여
10. 침례(세례)에 대하여

등 8조로 나누어서 매일저녁 분반공부를 했으며, 합숙훈련 이외에도 23명 전부 Men to Men으로 연결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정도 만나 훈련을 계속했다.

신문지를 한번 접으면 2장이 되고, 2번 접으면 4장이 되지만 30번을 접으면 자그만치 100Km가 된다. 제자화 훈련이 이것과 같은 원리다.

주님께서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 시면서 3년동안 12명의 제자를 훈련하셨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몇년 동안 투자했던 이유도 이 개인의 양육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교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후속프로그램을 기지고 그들을 양육한다면 한사람이 10년 후면 1,000명이 되고, 20년 후에는 100만명이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면 제자화의 귀증성을 더 더욱 알게 될 것이다.

제자라는 말은 2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흔히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 2:41)라고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제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의 제자라는 말을 살펴보자



(방한중국교포초청잔치에 참석해서
결신서를 쓰고 있는 교포들의 모습)

첫째로 '너희가 내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요8:31)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수직적 관계를 가진사람을 제자라고 말한다.

둘째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13:34-35)라는 말씀대로 이웃과 올바른 수평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을 제자라고 말한다.

셋째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요15:8)라는 말씀과 같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인격적인 과실과, 사람들에게 말씀 전파하는 전도과실을 맺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그러나 눅14:26,27,33 말씀에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좃지 않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현상유지(?)의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세가지 영역에 계속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

① Heart:

공부에 마음이 있는 자는 공부하는 데 능률적이고 운동에 관심이 있는 자는 운동에 열의를 다 하듯이 제자를 삼는 일도 주님께 대하여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중국교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② Vision:

중국교포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중국교포들을 어떻게 기독교화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③ Know-how: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와 같은 계획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고기잡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등과 같이 많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듯이, 여기서는 생의 바퀴(약3:6)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과실을 많이 맺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수레바퀴



1. 축- 중심되신 그리스도(고후5:17), (갈2:20)
2. 올바른 수평관계를 갖기 위해 믿는 자와는 교제(마18:20, 히10:24, 25)를, 불신자에게는 말씀을 증거(마4:19, 롬1:16)하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
3. 정상적인 수직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요15:7, 빌4:6, 7)해야 하며, 하나님께로부터는 성경 말씀(딤후3:16, 수1:8)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4. 전체적인 삶은 그리스도께 순종(롬12:1, 요14:21)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바퀴의 모습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점점 커져가야 한다. 바퀴가 작으면 작은 어려움과 시험도 빠지게 되지만 바퀴가 커지게 되면 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중국선교든 일본선교든 간에 선교를 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 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 오너라”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과정의 발전이 없이 중국, 일본, 북한선교를 한다면 가증된 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는 말씀같이 이제는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세상지식들, 경험, 정보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내 경험, 내 기준들도 필요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주님 앞에 아뢰야 하고, 이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며,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점검해야겠다. 자석에 녹슬지 않은 못을 붙이면 그 밑에 다른 못들이 주렁주렁 달라붙지만 조금 지나면 그 밑에 붙어있던 것들은 다 떨어져 버린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다면 우린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마28:18~20) ☉

<정리 · 박정옥(출판부 회원)>

중국과 북한에 성경을

- 성경배달사역의 현황과 전망 -

김 은 석

(모퉁이들 선교회 부설 한연구소 책임 연구원)

1. 성경배달사역의 중요성

중국의 기독교가 근래에 들어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괄목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의 한 가지가 바로 성경배달 사역인 것이다. 성경배달은 홍콩과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중국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홍콩에 있는 부흥 기독교회의 테니스 벨콤의 보고에서는 "성경전달은 중국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는 데 기여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한 예로 안휘성의 한 지역에서 300여명의 성도들에게 20여권의 성경책이 전달된 일이 있었다. 지도자들은 이것을 활용하여 설교도 하고 성경공부 모임도 조직하였다. 그러자 6개월이 채 못되어 그들은 800여명이 넘는 모임으로 성장하였다."고 하고있다.

또한 본 선교회 성경배달 일꾼이 중국성경을 어떤 분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 중의 한 성경책이 어떤 영감님에게 전해졌다. 워낙 작은 글씨여서 잘 볼 수 없었던 그 영감님은 지나가는 청년을 붙들고 그것을 읽어달라고 했다. 집에 가봐야 TV도 없고 어디가도 신룡한 구경거리가 없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그러니, 글 못 읽는 영감님이 지나가는 청년을 붙들고 좀 읽어 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겠는가? 하나 둘 사람들이 그 청년과 영감님 주변에 모여서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27명의 청년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

접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당국이 금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배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질문을 하기도 한다. 만일 자유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중국 기독교인들의 필요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지식에 도달하도록 돕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국가권위에 복종하는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한다. 이 문제의 해답을 얻는 데 있어 많은 중국선교단체들과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행5:29절의 말씀에 근거를 둔다. 즉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하므로 성경배달은 옳은 일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인 것이다.

2. 중국 성경보급사역을 보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

중국의 기독교정책은 본질적으로 통일전선정책에 기초해 있다. 통일전선 정책은 중국 공산당의 유서 깊은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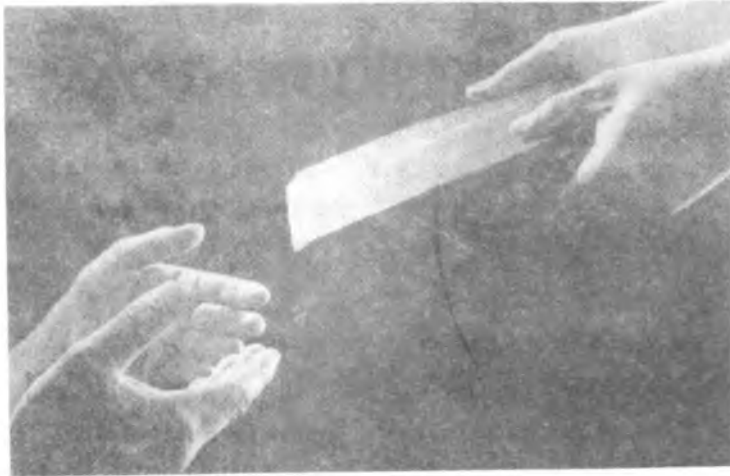
이 전략은 다음의 두 가지 원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소련과 같은) 더 큰 공동의 적들과 싸우거나 혹은 근대화와 같은 공동의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념적 적들과는 연합한다.

2) 공산당을 지지하기를 거부하는 자들과는 투쟁한다.

삼자애국운동(삼자교회와 기독교협회 포함)은

중국선교단체들과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행5:29절의 말씀에 근거를 둔다. 즉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하므로 성경배달은 옳은 일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인 것이다.



이와같은 통일전선 정책 하에서 중국 내의 기독교인들의 지지와 외국교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이 삼자애국운동 단체를 통하여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찾아내어 투쟁하고자 하는것이 중국의 목표이다. 이러한 투쟁 대상들에는 가정교회들과 중국 내의 순회 복음전도자들, 그리고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홍콩과 외국의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포함된다. 특히 외국의 기독교인들이 중국 내의 기독교사역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활동들은 사실상 “반혁명적” 혹은 “반국가적” 행위들로 간주하며, 성경배달과 같은 활동들은 불법적인 정치적 “침투”로 간주한다.

1982년 3월 31일 작성된 중국공산당의 내부 문서가 중앙문건 19호 「중국의 사회주의 시기 종교에 관한 기본 관점과 기본정책」이다. 이 문서에서 중국공산당은 “국제종교의 반동세력, 특히 제국주의 종교세력인 로마 교황청과 기독교의 선교회 등이 각종 기회를 이용하여 침투활동을 벌이며 중국대륙 수복을 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경각심을 높여 외국종교 적대세력이 중국에서 지하교회나 불법조직을 조직하지 않도록 삼엄하게 감시해야 하며, 종교를 빙자한 첩

보, 파괴 활동 등을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987년 1월 16일에 산서성 기독교 대표회의에서 통과된 산서양회(삼자교회와 기독교협회)의 정상 종교활동 고수에 관한 9개항에 의하면, “비밀 반입하여 들어온 종교서적, 소책자, 녹음 테이프와 성경, 찬송가 등의 종교 선전품은 모든 이가 받기를 거절해야 하며, 이미 받은 자는 그때그때 중국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중국의 종교정책이 언제나 일률적으로 즉각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정책변화가 중앙정부로부터 그 정책을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성과 현의 위원회에 전달되기까지는 보통 두세 달이 걸린다.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정책들이 엄격히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반쯤 무시되기도 한다. 특히 정치적 격동기에는 지방 관리들은 그것이 가혹한 것이든 관대한 것이든 간에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반입을 금지하는 정책의 강도는 중국의 정치 변화에 따라, 들어오는 공항 혹은 항구에 따라, 시간에 따라, 그리고 근무하

는 세관직원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 그러나 1989년 6월 천안문사태 이후로는 외국 여행객의 종교서적 휴대에 대한 검사가 철저하게 행해지고 있다. 특히 동구권 공산당의 쇠퇴 이후에는 성경반입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통제하고 있다.

3. 성경보급 현황과 전망

중국은 1963-1965년에 전개되었던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심하게 박해하였다. 특히 수많은 성경들을 찾아내어 불살랐다.

이와같은 강경노선정책은 비록 호전성이 다소 약화되기도 했지만 4인방의 집권기(1969-76)에도 그대로 유지 되었으며 1979년까지 변경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그러다 1979년부터 전개된 대외개방 정책에 따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온건노선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기독교협회를 통하여 1981년부터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다. 중국기독교협회의 대변인에 따르면 1981년부터 1987년 사이에 290만권의 성경전서와 신약성경이 인쇄되었다고 한다.

1987년에는 미국의 성서공회가 삼자애국운동과 중국기독교협회에 의해 사회봉사기관으로 설립된 애덕기금회에 칠백만 달러의 현대적 인쇄기를 기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1988년에 약 50만권의 성경이 인쇄되었는데 이것들을 전적으로 삼자애국운동 교회들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다. 성경 판매가격은 1988년 말 한 권당 7원 (미화로 약 1.5달러)이다.

중국의 기독교는 크게 중국공산당에 등록된 삼자교회와 등록하지 않은 가정교회로 나뉜다. 중국기독교협회가 1987년 발표한 공식통계에 의하면 삼자교회 성도수는 약 340만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순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1987년에 추산한 통계에 따르면 가정교회 성도들은 육천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또 1987년 중반에 공산당의 최고위 관리들사이에서 유포된

문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독교인들의 수가 오천만 명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같이 가정교회들이 중국성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정교회들은 지역적으로 도시에도 일부있지만 대부분이 시골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골에는 종교를 통제하는 국가기관이 설치된 지역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또 설령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지역이 넓은 관계로 그들이 지하의 종교집회들을 감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애덕기금회에서 인쇄한 대부분의 성경이 삼자교회에 의해 판매되며 일부는 몇몇 도시들이 관영 서점들에서 암거래되고 있고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판매하는 삼자교회 주변에 있는 삼자교회성도들, 대학생들 혹은 극히 일부분의 가정교회 성도들에 의해서만 구입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성경공급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1) 가정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부들로서 성경구입이 가능한 삼자교회나 관영서점의 근처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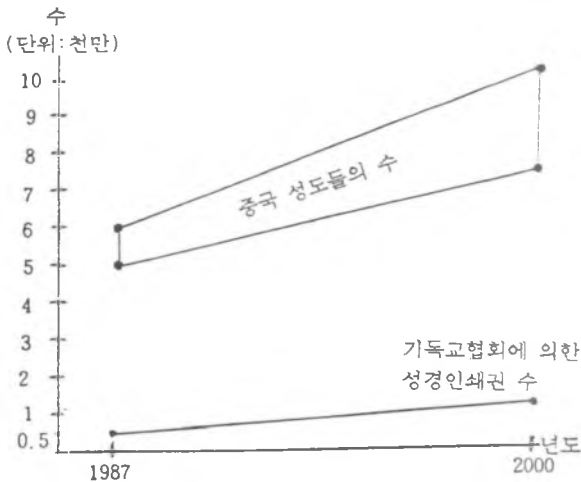
2) 성경판매금액(1987년 당시 미화 1.5달러)과 교통비가 농부의 소득(1987년 당시 연평균 미화 30달러)에 비하여 너무나 비싸기 때문이다.

3) 과거 중국공산당의 엄청난 박해를 경험하였으므로, 성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에서 조차도 그들은 성경을 주문할 때 부주의로 인해 그들의 정체가 당국에 탄로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가정교회 성도들은 외국의 성경배달 선교단체가 전달해 주는 성경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 기독교협회에 의한 인쇄와 외국 선교단체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반입으로 말미암아 일부 지역에서는 성경부족현상이 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1억이 넘는 인구와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성도들의 수, 교회의 급격한 성장, 국경선을 통한 대량 반입의 제한, 인쇄와 보

급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볼때 중국을 방문하는 기독교인들을 통한 성경배달사역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하는 선교사역 중의 중요한 한 부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선교자료센터로서 그 활동이 활발한 홍콩에 있는 CCRC의 분석통계(그림참조)를 보아 알 수 있듯이 늘어나는 성도수에 비해 성경의 보급이 현저하게 못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의 개인, 단체들의 성경배달과 또 대륙성도들 자체공급을 위한 인쇄기의 보급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교회를 효과적으로 양육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외에도 성경참고자료들이나 여러 기독교 서적들이 절실히 요청된다. 비록 약간의 자료들이 중국기독교협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제작되고 있긴 하지만, 책 내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인쇄설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기독교 서적들이 중국 내에서는 거의 공급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를 포함한 자유진영의 교회들이 복음전도에 관계된 서적들, 참고 도서들, 신학 교재들, 그리고 중국어로 된 주석성경 혹은 교육교재용 특수 성경들을 개발

보급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절실한 기도와 물질과 필요한 지역에 전달할 일꾼들과 필요한 자료들을 연구, 개발할 전문가들의 헌신과 지원이 요망된다.

4. 결 론

과거 10년 동안 중국에서 성경책이 가는 곳마다 믿는이들이 힘을 얻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책이 마을에 도착하자, 그 곳에 있던 몇 안되던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기도 하였으며 또 교회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

그러나 중국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골 지역의 성도들은 여전히 성경책을 주문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며, 때로는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삼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므로 다수의 가정교회들은 외국의 성경배달 전문 선교단체들이 반입하는 성경책에 의존하고 있다.

성경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으며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정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순회전도자들은 성경 외에도 그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교회사관계서적이거나 주석서, 성경공부 교재는 물론 신학서적과 신앙서적들을 열망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몸의 일부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에는 다른 부분들은 기꺼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중국교회와 전세계에 있는 교회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하는 일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기독교인들이 중국교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은 홍콩에 있는 중국교회연구소의 조천은 박사의 말과 같이, 중국교회를 위한 사역을 해오고 있는 전문 선교기관들과 연합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

중국어로 찬양을!

如鹿切慕溪水

As The Deer

Martin Nystrom

D A/C² Bm G Em Asus A7 D Asus A7
 3 5 5 3 2 | 1 2 4 3 2 1 | 6 6 5 . 1 | 5 - - - |

神啊，我的心切慕祢，如鹿切慕溪水。

D A/C² Bm G Em7 A7 D
 3 5 5 3 2 | 1 2 4 3 2 1 | 1 . 3 2 . 1 | 1 - - - |

唯有祢是我心所爱，我渴慕来敬拜祢。

Bm Bm/A G D G Em F⁶
 1 1 1 1 7 | 6 6 5 . 1 | 6 6 6 6 5 | 4 4 3 - |

祢是我的力量盾牌，我还单单降服於祢。

D A/C² Bm G Em7 A7 D
 3 5 5 3 2 | 1 2 4 3 2 1 | 1 . 3 2 . 1 | 1 - - - ||

唯有祢是我心所爱，我渴慕来敬拜祢。

© 1984 Maranatha! Music.

All rights reserved. International copyright secured. Used by permission.

中文译作权 1990財團法人基督教以琳書房

우리말 가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해매이 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최초로 사회 사업을 중시한 훌륭한 목사



왕옥초(1843-1902)

廣東省 東莞縣 出生

왕옥초 목사는 청나라 말기에,父子 양대에 걸쳐서 세 명이 전도사업에 헌신한 가정에 태어났다. 그는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사업을 중시하였다.

아편을 끊을 것을 제창한 것이라든지, 맹인 여자들을 위한 학교와 고아원을 설립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 등에 있어서 모두 뛰어난 공헌이 있었다. 그리하여, 후세들에게 우러러 존경받을 모범을 남겼다. 왕 목사는 이름이 침휘(沾輝)이고, 자는 병요(炳耀)이며, 호는 옥초(煜初)이다.

광둥성(廣東省) 동완현(東莞縣) 관용(官涌)사람으로 기독교 신의종(信義宗), 예현회(禮賢會) 선교사, 왕원심(王元深)의 장자이다. 어려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의 부친은 그와 그의 동생 겸여(謙如) 두 아들을 예현회의 독일 국적인 엽납청(葉納靑) 목사가 맡고 있는 혜주(惠州) 요촌(坳村)에 있는 전도학교에 보내 공부시켰다. 엽목사는 학교성적 결과를 보고 옥초가 성정이 어리석고 게을러 공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의 부친 원심(元深)에게로 돌려 보내면서 옥초에게 일찍이 기예를 배우게 하여 한 가지 재주를 가지게 할 것을 권하였다. 원심은 옥초에게 목수일을 배울 것을 명했으나 옥초는 따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버지의 엄한 책망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을 간구했다. 얼마 되지 않아 옥초는 소개를 받아 예현회 공손혜

(公孫惠) 목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의 보좌역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일은 매우 힘든 것이었다. 옥초는 이 곳이 절대로 오랫동안 일할 곳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반 년 후 그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뜻을 세워 엽 목사에게 다시금 받아주기를 청원하였다. 엽 목사는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았으나 재삼 졸라대자 끝내는 그를 받아들이기를 동의하였다. 이 때 옥초의 나이는 19세였다. 이때부터 그는 게으른 습성 바꾸어 학습에 근면했고 항상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몇 년 뒤에는 과연 시험성적이 전체에서 상위권에 오르게 되었고 국학과 신학에 좋은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同治 5년(1866년) 그는 전도학교를 졸업하고 예현회 전도사직을 맡아서 동완(東莞), 신회(新會) 두 곳을 두루 돌아 다니며 담대히 전도하였다. 그의 전도에 대한 성실함은 선배와 동료 목사들로부터 칭찬과 탄복을 받을만 하였다. 그러나 힘든 선교일 때문에 3년 후(1869)에는 폐결핵에 걸려서 기침이 그치지 않았으며 가래에서 피가 나오기도 했다. 同會의 화지안(花之安) 목사는 그에게 치료받을 것을 권하여 그를 홍콩 신의종(信義宗) 파능회(巴陵會)에서 주관하는 고아원에 보내 병을 요양하게 했다. 그는 독일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서 그 해 겨울 폐병이 완쾌되었다. 이에 옥초는 호문(虎門)으로 가서 전도를 시작하였다.

同治 9년(1870), 광둥성에서 갑자기 민간에 헛소문이 돌았다. 즉 서양 전도사들이 알약으로 사람을 미혹케 하고, 또 부녀자들을 간음한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동완(東莞), 석룡(石龍) 등지의 교회가 민중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옥초는 동완에서 전도하고 있는 아버지의 안전이 우려되어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친을 문안하고자 하였다. 그는 배안에서 헛소문의 망령됨을 애써 변론하다가 같은 배에 탄 무지한 민중들에게 불만을 사서 하마터면 죽음을 당할 뻔 하기도 하였다.

도 하였다.

同治 12년(1874), 그는 福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폐병이 재발하였으며 이듬해 홍콩으로 가서 요양을 하였다. 요양기간에 그는 파능회(巴陵會), 옥영당(育瓔堂)의 초청을 받아 고아들을 열심히 돌보았다. 옥영당에서는 수년간 봉사하며 뛰어난 공헌을 한 그를 광서 10년(1884)에 목사로 인수하여 세웠다. 그후 홍콩의 런던회에 속한 중국인 신도들이 제회당(濟會堂)을 세워 왕옥초를 청빙하게 되었다. 국부 손문 선생은 자신이 홍콩에서 학업을 연마하고 있을 때 주일이 되면 제회당에 가서 왕옥초의 설교를 듣고 많은 감화를 받았다고 한다.

왕옥초는 열심으로 전도하는 외에도 사회 복지 문제에도 열심을 보여 주었다. 그는 고아를 돌보는 한편 아편의 해독을 경고하며 아편금지 운동을 펼쳤다.

광서(光緒) 16년(1896), 왕옥초는 맹인 여자들을 위해서 독일 각 교회에 진정서를 보내 맹인 여자들이 중국사회에서 받고 있는 비인간적인 차별대우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였다. 마침내 독일교회 여신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많은 여선교사가 감명을 받아 중국에 왔고 또한 자금을 기부하여 심광서원(心光書院)이라는 맹아원을 구룡토과만(九龍土瓜灣)에 건립하였다.

왕옥초는 문장실력도 뛰어나서 <釋疑彙編>, <孝道折衷>, <說教說>, <播道說>, <教書上書記> 등의 책을 썼으며 이는 호교(護教)와 선교(宣教)에 큰 유익이 되었다. 왕옥초는 광서 28년(1902)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해는 扶林교회 묘지에 안장되었으며 그의 제자인 영남대학(嶺南大學) 총장 종영광(鍾榮光)이 묘비의 글을 써서 그의 일생을 종합하였다. 그는 실로 후세 사람에게 공경과 우러름을 받을 만한 모범을 남겼다. ◊

(출전: 中國基督教人物小傳 上卷)

중국 기독교 토착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Ⅲ)

-중국교회 역사발전의 관점에서 검토함-

林治平

(연구부 제공)

4. 의미전달체계와 종교의식 문제

의미전달체계와 종교의식은 문화종교의 표층현상에 해당하지만 어떤 문화이념이나 종교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모두 의미전달체계와 종교의식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의미전달체계가 서로 다르므로 인하여 기독교가 성결하고 숭고하게 여기는 각종 종교의식이나 절기행사 등이 왕왕 중국문화의 맥락체계에서는 대역무도하다든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문화맥락부호체계가 달라서 중국인이 자신의 맥락부호체계로 서방의 수많은 부호의식을 해석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테면 세례(혹은 침례)를 받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신성한 의례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국인의 눈에는, 특히 여자가 침례장에서 남자목사에 의해서 침례받는 것을 볼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음탕한 짓이라고 욕하게 될 것이다. 또 기독교에서 성찬에 참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버려 피 흘려 주신 것을 기념하는 매우 신성한 의례이나 중국인이 보기에는 목사가 증언거리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주문으로 단정하므로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 이처럼 수많은 문제가 다 서방선교사가 기독교를 중국에 전파해오는 과정에서 중국인의 수많은 문화습속에 있어서의 금기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이런 논쟁을 서방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어떤 때의 중국인의 반응은 매우 우스꽝스럽고 심지어 어리석은 것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중국문화 오천년 전통에서 말한다면 특히 부호쪽에서 관찰 해석할 때 이런 외래문화에 대해서 의심과 꺼림이 생기고 불가사의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반대로 수많은 중국문화 중의 문화습속이나 부호체계가 서양사람들의 눈에서는 이단적인 것이고 음란한 것이나 우상숭배의 이교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인의 사회에서 보편적인 예의인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라든가 특히 황제를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서양의 외교사절들은 극도의 모욕으로 여기고 완강한 태도로 이를 받아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중국교회사 중 부호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견충돌은 크고도 많다. 토착화나 情懷化나 연관화의 각도에서 상대방의 부호체계, 문화습속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중국교회사에서 수많은 분쟁의 실마리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부호의 의미가 고정되거나 불변이 아닌 한 부호와 의미 사이에는 해석의 과정보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토착화의 각도에서 우리는 먼저 한 문화의 부호를 빌어서 사용하고 세월이 가는 동안 다른 부호를 대체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냄으로써 그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로마제국시기의

가장 성공적인 예는 태양신의 기념일을 예수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변하게 한 것으로 이것은 가장 분명한 부호대체의 예이다. 부호대체는 토착화의 결과인데 애석한 것은 중국교회에서 선교사들이 토착화부호를 입수하고 점점 그 의미를 대체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뿌리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부호대체의 방법을 아주 적게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5. 祭祖·祀天·尊孔問題

祭祖祀天尊孔(조상에 제사하고 하늘에 제사하며 공자를 존숭하는 것)은 중국문화의 가장 심층적이고도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학의 각도에서 분석해 본다면 그것은 전체 중국사회의 구조에서 안정과 정합의 기본요소이다. 이른바 터럭하나 뽑으면 뭉뚱이 전체가 움직인다는 말처럼 외래문화속이나 종교의례가 한번 이 문제와 부딪혀서 충돌하게 되면 매우 번거로와지게 된다. 토인비의 문화방사법칙에 의하면 한 외래문화의 광선의 침투력은 이 광선의 중요성과 반비례한다. 바꾸어 말하면 문화광선이 異文化에 침투할 때 그것이 중요하면 할수록 거절당하거나 배척당하는 것도 심하다. 역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즉 중요한 문화요소 일수록 외래문화의 광선에 의해 침투되기가 어려우며 즉시 튕겨져 버린다. 서방문화가 중국으로 전이 될 때 만약 중국 최종심층의 한면을 간섭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를테면 일단 祭祖祀天尊孔 問題 같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부딪히면 필연적으로 강렬한 반발을 만나게 되고 심각한 논쟁이 야기된다. 마테오리치가 중국에 와서 천문, 지리, 과학기술 심지어 교리를 이야기 했을 때 대부분 다 중국인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인의 祭祖祀天尊孔의 의식문제에 부딪히게 되자 즉시 중국인의 강렬한 반발을 당하여 거절당했다. 중국인은 순식간에 천주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돌변하여 선교를 엄금하게 되었다. 그러



(중국 심양시기독교서탑교회 전경)

므로 중국에서의 기독교 토착화문제를 얘기할 때 祭祖祀天尊孔 問題는 논쟁과 어려움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문제이다. 중국의 祭祖祀天尊孔 問題는 도대체 하나의 사회의례인가? 미풍양속인가? 하나의 미신인가? 우상숭배인가? 이것이 줄곧 논쟁의 초점이었다. 또 그것이 선교사 및 중국문화 쌍방의 가장 깊은 내용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토착화과정에서의 문제 역시 그만큼 심각했던 것이다. 어쨌든 20세기 이후 중국관공서에서는 다시 한번 祭祖祀天尊孔 問題가 사회의례이지 결코 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일종의 종교적 우상숭배라고 단정하였고 그리하여 집정자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대만에서도 50년대에 국기 및 국부동상에 대한 경례에 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격렬한 충돌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사정은

지금까지도 토착화문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고 있어 한층 더 노력이 요청된다.

6. 신학과 신앙상의 문제

서방사상은 비교적 추상적 이념 및 철학적 사고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인은 오히려 매우 실체적이고 구체적이며 직각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중시하며 환상을 중시하지 않는다. 추상적이고 철학적 사유에 치우친 신학으로 비교적 현실적인 중국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중국인은 이러한 내용을 별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죄의 개념에 대하여 말할 때 구체적인 죄악인 살인, 방화, 간음, 강도, 절도 등의 도덕상의 범죄를 떠올릴 것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추상적인 「原罪」, 「하말티아(화살이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으로 죄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에서 멀어진다는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함」 등이다. 또 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삼위일체」는 성경 가운데서 이 네 글자가 나타난 적은 없었지만 신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앙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예수를 믿은 지 아주 오래된 크리스찬까지도 어떤 것을 삼위일체라고 이르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주 적으리라고 믿는다. 이밖에 오늘날의 신학이나 호교학은 서방교회사로부터 대대로 변화되어 점차 형성된 것이다. 우리는 서방교회의 기록을 통해서 기독교가 서방에 전래된 후 즉시 각종의 정치, 사회, 문화, 사상의 충격에 직면하였는데 교회는 신앙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회를 소집해서 연구토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각종의 실제적인 곤란이나 신앙적인 의문점, 사상충격의 포위공격에 직면하자 이런 쟁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과 호교학이 발전했다. 그러므로 신학과 호교학은 기독교가 서방에 전래된 이후에 서방문화 속에 토착화를 진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교회역사에서

역대의 호교회회는 대부분 기독교와 당지문화간에 발생한 해결하기 어려운 충돌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이다. 교회지도자들은 반복되는 토론과 격렬한 논쟁을 거쳐 회의가 끝난 후 신앙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각종 신앙상의 쟁점들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이로써 점차 서방 기독교의 전통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서방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부딪힌 각종 문제가 반드시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서방의 신학이나 신앙을 그대로 중국에 옮겨놓는다면 같은 문제를 놓고도 서로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신학은 중국의 사회문화나 역사 가운데서 자료를 찾아야 하며, 중국의 호교학도 중국교회사, 특히 중국인의 반교사상 및 반교행동 가운데서 대처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신학이나 호교학은 서방의 신학이나 호교학처럼 반드시 토착화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중국에 뿌리내릴 수 있고 중국인의 문제를 해결하여 기독교를 중국의 문화사회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게 된다. 애석하게도 오늘날까지 중국의 교회는 자신의 신학과 호교학이 없다. 30년대 전후 토착화토론 기간 중에도 우리들은 중국적이며 신앙적인 인재를 한 명도 찾지 못하였다. 더욱 불행한 것은 당시 수많은 토착화신학의 토론이 중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新派의 이단사설인 것으로 배척을 당하고 비판되었다는 사실이다. 금년(1988) 6월 16일 중국기독교협진회 부주석 沈以瀟목사는 (6월 26일 상해 목은당에서 주교가 되었다.) 상해에서 공개강연을 하였는데 강연제목은 「신학사상 중의 중국교회」였다. 그는 여기서 處境化의 신학 문제를 제시하였다. “신학사상은 우리가 처한 현실상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학용어로 말하자면 그것이 어떤 신학사상이고 어떤 모두 처경화의 사상이다. 우리들은 때로는 신

신학의 토착화는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에 있어서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애석한 것은 중국교회가 이 방면에서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중국신학원에서 배우는 신학은 여전히 서방의 체계신학이다.

학사상에도 토착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어떤 사회나 민족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신학사상으로 하여금 더욱 토착화시킬 수 있겠는가?

나는 처경화나 토착화를 막론하고 두 가지가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구별되는 점도 많이 있다. 신학토착화가 신학사상과 우리의 전통문화와의 결합문제를 더 중시한다면 처경화는 토착화에 비해서 더욱 범위가 넓다.

처경화는 토착화를 포괄한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서로 결합할까? 하는 문제 외에 처경화는 우리의 신학사상과 우리가 처한 현실상황 및 현실사회의 변혁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한다. 중국의 신학사상은 민주전통문화의 정화를 흡수해야 하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의 신학사상이 현대중국의 처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거대한 변혁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신학사상이 처경화해야 한다는 의미의 전부이다.

나는 심목사의 이러한 전제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목사는 대륙의 과거 3,40년의 발전을 연계시켜 9개항의 중국교회신학사상상의 문제를 제시했으며 오늘날의 중국교회사역자들이 신학상에서 반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많은 사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애석하게도 이런 문제는 지나치게 참여하여 서방신학사상에 익숙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오히려 심목사의 논증이 통전신학이라고 공격했다. 개인적으로는 비록 심목사의 의견이 토론할 만한 여지가 있으며 그의 신학적 견해에 대해 각자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가 제시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기독교토착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신학의 토착화는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에 있어서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애석한 것은 중국교회가 이 방면에서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중국신학원에서 배우는 신학은 여전히 서방의 체계신학이다.

호교학은 여전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교부시대 및 문예부흥과 이성주의의 충격하에서 서방교회가 대응, 대처하던 기록이다. 언제나 우리에게도 유가사상 묵자사상, 송명리학, 불교사상의 충격하에 대처하는 중국호교학이 있을 수 있을까? ◇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정기세미나 안내◇

<6월 정기세미나>

주제: 타문화권 선교의 준비
강사: 박선진 선교사(지주촌선교회)
일시: 1991년 6월 24일 (월) PM. 7:00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7월 정기세미나>

주제: 북한선교의 현황과 전망
강사: 고태우 교수(북한선교원)
일시: 1991년 7월 29일 (월) PM. 7:00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중국 고대 “하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김 학 주 (서울대 중문과 교수)

(1)

모든 <중국철학사>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중국 고대에는 “하늘”(天·上帝)에 대한 믿음이 보편적이었다. 그 증거는 <詩經>·<書經>·<左傳>·<國語> 등 중국의 옛 전적 속의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하늘이 여러 사람들을 낳았고 만물이 존재하며 법도가 있도록 하셨다.”(<詩經> 大雅 烝民) “하늘이 높은 산 만드셨는데 太王께서 그 곳 다스리셨다.”(<詩經> 周頌 天作) “夏나라 임금 죄가 많아, 하늘이 명을 내려 멸망케 하였다.”(<書經> 湯誓)

일일이 그 보기를 다 들 수가 없을 정도이다. 여기의 “하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고 그 존재를 主宰하는 인격적이면서도 다시 없이 至高한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周나라가 어지러워져서 非理와 不法이 횡행하여 포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연이어지는 내란과 전쟁 속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불행을 당하는 참상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서, 자신들을 主宰하는 “하늘”이란 존재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여러 雜神과 迷信이 대신 들어차게 된다. 그런데 西周 말엽에 시작된 혼란 속에서도 이 하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였던 두 사상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孔子와 墨子이다.

(2)

孔子는 儒敎의 창시자이다. 儒敎가 지금까지도

종교다 종교가 아니다 하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孔子는 주로 현실적인 문제만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삼았었기 때문이다. <論語>를 보면 孔子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삶에 대하여도 모르는 데 어찌 죽음에 대하여 알겠는가?”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선생님께서서는 괴이한 일, 힘으로 하는 일, 어려운 일, 귀신에 관한 일은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제자들이 선언하고도 있다.

공자는 확실히 ‘하늘’을 믿으라고 가르치거나 ‘上帝’의 존재나 권위 같은 것에 대하여 애기한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論語> 만을 놓고 따져 보더라도 그의 사상과 행동의 바닥에는 ‘하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기에 일찍이 공자의 제자 子貢이 “선생님의 학문에 관하여는 들어서 배울 수가 있었지만은 선생님의 本性과 天道에 관한 이론은 들어볼 수도 없었다.”고 <論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孔子는 위기에 몰리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하면 언제나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찾고 있다. <論語> 만 보더라도, 만년에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다가 宋나라에서 환뢰라는 군인이 오해를 하여 孔子 일행을 죽이려 하였을 때 함께 있던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몰랐었으나, 孔子는 태연히 “하늘이 내게 德을 부여해 주셨거늘, 환뢰가 나를 어찌 하겠는가?고 말하고 있다. 匡이라는 고장에서 위기에 처하였을 적에도 “文王께서 돌아가신 뒤로 文化는 나에게 전해져 있지 아니한가? 하늘이 文化를 없애버리려 하신다면 후세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중국 고대인이 믿었던 '하늘'보다도 더욱 완전하시고 참된 존재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을 옳게 믿으면 그에 따른 '사랑'도 더욱 완전하고 참되어야만 할 것이다.

文化를 접하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하늘이 이 文化를 없애려 하시지 않는다면 匪사람들이 나를 어찌 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늘'을 빌어 자신이 중국문화의 전승자임을 자부하고 있다. 이 밖에도 <論語>에는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도 없게 된다." "내가 누굴 속이겠는가? 하늘을 속이겠는가?" "나를 알아주는 것은 바로 하늘이다"는 등의 孔子의 '하늘'에 대한 믿음을 엿보게 하는 말들이 여러 곳에 적혀 있다. 다만 孔子는 "生死는 命에 달려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따위의 宿命論적인 경향도 지니고 있는게 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墨子は '하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사상의 바탕임을 더욱 분명히 선언한 사상가이다. <墨子>의 天志편은 바로 그의 '하늘'에 대한 믿음을 정리한 글이다. '하늘'은 無所不在하고 無所不明하면서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지혜로운 존재"이다. '하늘'은 사람들을 무한히 사랑하여 "해와 달과 별이 있게 하고 일년 사철이 있게 하며, 비, 이슬과 눈, 서리를 내려주고 오곡과 식물을 자라게 하며, 산과 냇물을 마련하고 쇠와 나무와 새, 짐승도 마련하였다"고 논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범과 만물이 존재하는 법칙 등도 모두 '하늘'에게서 나온다. 그러니 사람은 "하늘을 법도로 삼고", "하늘의 뜻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라의 통치자도 하늘의 뜻에 알맞는 사람이어야 하고, 정치도 하늘의 뜻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의 유명한 '兼愛'사상도 '하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하늘'을 보아라. '하늘'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젊은이, 늙은이, 남자와 여자를 조금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고 비, 이슬을 내려주고 있지 아니한가? 그것이 바

로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도 '하늘의 뜻'을 좇아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兼愛'이다. 그 밖에 그의 勤儉·非戰의 주장 및 정치, 윤리 등의 사상도 모두 '하늘'에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두말 할 것도 없다.

(4)

중국의 옛 사상가들 중에서 '하늘'에 대한 믿음이 있던 孔子와 墨子에게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랑'의 개념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孔子는 사람들의 계급이나 신분 및 친소관계를 너무 따지기는 하였지만, 그의 '仁'의 사상은 '사랑'에 가까운 개념이다. <論語>에는 孔子가 그의 제자에게 '仁'의 뜻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풀이한 대목이 보인다. 墨子の '兼愛'는 人性을 무시한 과격한 사상이지마는 그 또한 '사랑'임에는 틀림없는 개념이다. 이들에 비하여 無爲를 내세운 道家는 인간의 문제 자체에 소원하고, 刑法을 중시하는 法家は 각박하기만 하고, 위선적인 名家는 형식주의적이며, 미신적인 陰陽家は 이기주의적이며, 책략을 앞세우는 從橫家は 비인간적이며, 모두 '하늘'에 대한 믿음이란 전혀 찾아볼 수도 없다. 그 위에 이들 사상가들에게서는 '사랑'의 개념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곧 '하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상가들에게는 '사랑'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은 '하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중국 고대인이 믿었던 '하늘'보다도 더욱 완전하시고 참된 존재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을 옳게 믿으면 그에 따른 '사랑'도 더욱 완전하고 참되어야만 할 것이다.

중국의 옛 역사를 거울삼아 자기 안에 '사랑'을 키우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

(사도행전 4장11절~22절)

그 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멩이인데, 이미 짐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그 분 외에는 달리 구원이 없다.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본시 학식이 없는 소시민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상하게 여겼으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았다. 또 고침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반박할만한 말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공회로부터 나가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정말로 기적을 행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 우리들도 그렇지 않다고 말 할 수 없다.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욱 전파될까 두려우니 우리들은 반드시 이들을 협박해서, 이들로 하여금 더이상 이 이름을 받들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는 그들을 다시 들어오라고 불러서 그들에게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서 강론하여 가르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여러분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벌줄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또 한번 더 위협하고는 그들을 석방해 주었다. 이것은 무리들이 모두 행해진 기적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

다. 기적에 의해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여세였다.

◇ 단어 해설 ◇

匠人	jiàng rén	장인
石頭	shí tóu	돌. 바위
頭塊	tóu kuài	머리돌
拯救	zhěng jiù	구원하다
膽量	dǎn liàng	담력. 용기
原	yuán	최초의. 본래의
希奇	xī qí	희귀하다. 드물다.
認明	rèn míng	똑똑히 식별하다.
站着	zhàn zhe	서 있다.
駁	bō	반박하다. 논박하다.
神蹟	shén jī	기적. 영험한 흔적
惟恐	wéi kǒng	다만 ..할까 두려움.
越發	yuè fā	① 더욱. 한층 ② ...할 수록. ..하다.
恐嚇	kǒng hè	위협하다. 협박하다.
講論	jiǎng lùn	담론하다. 속덕공론하다.
聽從	tīng cóng	듣다. 따르다. 복종하다.
合理	hé lǐ	도리에 맞다. 합리적이다.
酌量	zhuó liáng	참작하다. 헤아리다. 가능하다.
緣故	yuán gù	연고. 이유
釋放了	shì fàng le	석방하다. 방출하다
奇事	qí shì	기이한 일
榮耀	róng yào	영예. 영광

【原文】

SHĪTÚ XÍNG ZHUÀN
使徒 行 传



Dì Sì Zhāng
第 四 章

Tā shì nǐmen jiāngrén suǒ qì de shítou yì chéngle
11他是你们匠人所弃的石头，已成了

fángjiǎode tóukuài shítou Chū tā yìwài bié wú zhěngjiù yīnwei zài
房角的头块石头。12除他以外，别无拯救；因为在
tiānxià rénjiān méiyǒu cíxià biēde míng wǒmen kěyǐ kǎozhe déjiù。
天下人间，没有赐下别的名，我们可以靠着得救。”

Tāmen jiàn Bidé Yuēhàn de dǎnliàng yòu kànchū tāmen yuán shì
13他们见彼得、约翰的胆量，又看出他们原是

méiyǒu xuéwen de xiǎomín jiù xīqí rènming tāmen shì gēnguo Yēsū de
没有学问的小民，就希奇，认明他们是跟过耶稣的；

yòu kànjian nà zhìhǎolede rén hē tāmen yìtóng zhānzhè jiù wú huà kě
14又看见那治好了的人和他們一同站着，就无话可
bō Yúshì fēnfù tāmen cóng gōnghuì chūqu jiù bíci shāngyì shuō
驳。15于是吩咐他们从公会出去，就彼此商议说：

Wǒmen dāng zěnyàng bàn zhè liǎngge rén ne Yinwei tāmen chéngrán
16“我们当怎样办这两个人呢？因为他们诚然

xíngle yíjiàn míngxiǎnde shénjì fán zhù Yelūsālěng de rén dōu zhīdao
行了一件明显的神迹，凡住耶路撒冷的人都知道，

wǒmen yě bù néng shuō méiyǒu Wéikǒng zhè shì yuèfā chuányángzǎi
我们也不能说没有。17惟恐这事越发传扬在

mínjiān wǒmen bìxū kǒnghè tāmen jiào tāmen bú zài fèng zhè míng duì
民间，我们必须恐吓他们，叫他们不再奉这名对

rén jiǎnglùn yúshì jiàole tāmen lái jìnzhǐ tāmen zǒng bùkě fèng Yēsū de
人讲论；”18于是叫了他们来，禁止他们总不可奉耶稣的

míng jiǎnglùn jiàoxun rén Bidé Yuēhàn shuō Tīngcōng nǐmen bù
名讲论教训人。19彼得、约翰说：“听从你们，不

tīngcōng Shén zhè zài Shén miànqián hēli bu hēli nǐmen zìjǐ
听从神，这在神面前合理不合理，你们自己

zhuóliang ba Wǒmen suǒ kànjian suǒ tīngjian de bù néng bù shuō
酌量吧！20我们所看见所听见的，不能不说。”

Guānzhǎng wèi bǎixìng de yuángù xiǎngbúchū fǎzǐ xíngfá tāmen yòu
21官长为百姓的缘故，想不出法子刑罚他们，又

kǒnghè yì fān bǎ tāmen shìfàngle Zhè shì yīn zhòng rén wèi suǒxíngde
恐吓一番，把他们释放了。这是因众人所行的

qìshì dōu guī róngyào yǔ Shén Yuánlái jièzhe shénjì yī hǎo de nà rén yǒu
奇事，都归荣耀与神。22原来借着神迹医好的那人有

sìshí duō suì le
四十多岁了。

『하나님은 반드시 온전히 이루신다』

(시 37 : 5)

(번역: 양 승 훈)

나는 전에는 기도를 마친 뒤에는 마땅히 한 가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겼다. 그것은 곧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일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에, 이런 생각이 절대적인 잘못이며 도리어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마친 후에는 전적인 믿음을 갖고 찬미와 감사로 그의 응답을 기다리기를 원하신다. 꼼짝도 않고 앉아서 오직 하나님을 기대기만 하는 것은 너무 타당치 못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자기 스스로 움직여 보려는 아주 커다란 유혹에 빠진다.

물에 빠진 사람이 그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수영에 능한 자가 그를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활동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를 위해 아무 것도 하실 수 없다. 이는 결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섭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막기 때문이다.

땅에 속한 힘이 활동할 때는 하늘에 속한 힘이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그만큼의 시간을 드리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한 송이의 장미를 그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상수리나무를 자라게 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시며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시다. 하나님은 먼저 보리밭을 준비하시고 부드럽게 그 밭을 가시며 비료를 주시고 이슬과 비를 내리시며 햇빛을 내려주시고 부드러운 잎사귀를 자라게 하시며 이삭이 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가루로 만들어 불에 구우신다. 그런 뒤에 빵을 만들어 굽주린 사람으로 하여금 배불리 먹을 수 있

도록 하시는 것이다.

어떠한 수속이라도 다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땅을 갈고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믿고 기다려야만 한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을 드려야만 한다. 우리들은 기도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한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단어 해설 ◇

禱告	dǎogào	기도드리다. 기원하다.
盡力	jìnlì	힘을 다하다.
幫助	bāngzhù	① 돕다. 원조하다. ② 도움. 원조. 보조. 충고
錯誤	cùwù	① 잘못된. 틀린 ② 틀린 행위. 실수. 잘못
攔阻	lánzǔ	가로막다.
穩妥	wěntuǒ	온당하다. 타당하다. 안전하다. 확실하다.
試探	shìtàn	(어떤 문제를) 탐색하다. 모색하다. 탐구하다.
拯救	zhěngjiù	구하다. 구제하다. 구조하다. 구출하다. 건지다.
掙扎	zhēngzhā	힘써 버티다. (지탱하다). 발버둥치다. 발악하다.
玫瑰	méiguì	장미. 때질레
橡樹	xiàngshù	상수리나무
麵包	miànbāo	빵
嫩	nèn	① 부드럽다. 연하다. 여리다. ② 만만하다. 말랑말랑하다.
磨粉	mòfěn	가루를 내다. 제분하다.
應該	yīnggāi	마땅히 ~해야한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
功課	gōngkè	① 학과목 ② 강의. 학습. 수업

(原文:「荒漠甘泉」중에서)

四月十八日

「祂就必成全。」(詩三十七篇五節)

我以前以為我禱告了之後，該負一個責任：按我所能作的盡力去作，來幫助神成全。後來，神親自教導我、指示我，這是絕對的錯誤，這反能攔阻祂的工作。祂要我禱告了之後，完全相信，用讚美和感謝去等待祂的答應。坐着不動，單信靠神，未免太不穩妥罷；我們常會有極大的試探想去自己活動。

我們都知道一個善於游泳者不能拯救一個溺者，如果後者不肯停止他自己的掙扎。神也照樣不能替我們作甚麼，如果我們不肯停止我們自己的活動。並不是神不肯，乃是神不能，因我們的干涉攔阻祂的工作。— C.H.P.
屬地的力在活動的時候，屬天的力不能工作。

神答應禱告是需要時間的，我們常不肯給神相當的時間。神需要時間去畫一朵玫瑰，神需要時間去長一棵橡樹，神也需要時間來供給我們麵包：神先預備一塊麥田、耕鬆、撒種、加肥料、降雨露、降日光、長嫩葉、生穗、結實、磨粉、烘烤、然後製成麵包，使饑餓的人得着飽足。

每一部手續都需要時間，所以我們今天耕了地、撒了種，就應當等待、信靠，直到神的日期來到。我們應該給神相當的時間。讓我們在禱告的生活中也學習同樣的功課——神答應禱告是需要時間的。— J. H. M.



새해와 관련있는 이야기

(번역부 제공)

河北省 保定縣 남쪽에 있는 어느 마을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옛적에 飽暖(포난: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낸다는 뜻)이라는 부자와 忍飢(인기: 굶주리며 지낸다는 뜻)라는 가난뱅이가 있었다. 飽暖은 忍飢에게 세끼의 밥을 줄테니 그의 집에서 일을 하라고 했다. 어느날 忍飢는 길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잡아온 새를 가지고 놓고 있는 것을 보고 가련한 마음이 생겨 떡 여섯 덩이를 주고서 새를 받아서 놓아 주었다. 飽暖은 忍飢가 먹을 것을 낭비한다고 하여 화를 내며 해고시켰다. 얼마 뒤 연말이 되어 집집마다 새해를 맞으며 만두를 만들어 먹고 있었다. 그러나 忍飢의 집에는 잡곡가루로 빚어 만든 窩頭(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조차도 없었다. 그는 나가서 시들어 빠진 배추를 주워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술에 만두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때부터 매일 같이 누군가가 그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는 것이었다.

하루는 그가 이상하게 느껴 집 밖에서 엿보고 있었는데 아리따운 여자가 그를 위해 밥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곧장 그 미녀를 붙잡았다. 그 미녀는 “저는 본래 南海 용왕의 딸로 이전에 새로 변하여 반도회(蟠桃會)에 참석하려 갔다가 뜻하지 않게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에게 붙잡혔는데 다행히도 당신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

고 오라고 하셔서 백일 동안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뒤 미녀는 忍飢의 아내가 되었는데 하루 저녁 사이에 웅장한 집을 지어 두 사람은 그 곳에서 함께 살았다. 飽暖은 忍飢 처의 아름다움에 홀려 忍飢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와 그의 처를 바꾸자고 했다. 忍飢의 처는 그렇게 하라고 전했다. 두 사람이 각각 교환을 한 뒤 飽暖이 하루 저녁 자고서 깨어 보니 바꾸었던 처자와 집은 모두 간곳이 없고 자기는 흙덩이를 베고서 자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 飽暖과 忍飢 두 사람의 처지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의할 점은 주인공에게 놀라운 기적이 생긴 것은 바로 새해를 맞이하는 때에 발생했다는 것인데 새해와 관련되어 있는 이점은 우연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기타 많은 지방에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새해 부분이 들어가 있다.

長江유역의 安徽省 廬江縣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黃小는 집안이 가난하여 새해가 되었는데도 새해를 지낼 쌀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가서 쌀을 빌렸는데 돌아오는 길에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다. 그런데 그것은 둥글고 아주 빛나는 돌이어서 주워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는 보석을 알아보는 어떤 사람이 와서 黃小에게 “이 돌멩이는 보석인데 그것을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좋은 일을 기대하는 희망을 대변하고 있으며 특히 가난하거나 불우하고 착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부딪치면 용왕의 머리를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많은 보물을 보내 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에서 흰 닭을 달라고만 하여라"고 일러 주었다. 黃小는 그가 일러 준대로 하여 바다 용왕에게서 흰 닭을 한 마리 얻어 왔다. 그 때부터 매일같이 누군가가 黃小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놓는 것이었다. 그는 의아하게 여겨 집 밖에서 몰래 엿보고 있는데 그 흰 닭이 깃털옷을 벗고 아름다운 처녀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뒤 黃小는 그 깃털옷을 감추어 버리고 마침내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았다. 친구는 하룻밤 사이에 黃小에게 집을 주고 아내를 바꾸자고 했다. 그 뒤 黃小가 후회할까봐 黃小의 처를 위협하였다. 黃小는 화가 나서 감추어 두었던 깃털옷을 그의 아내에게 돌려 주었다. 그녀는 기뻐하며 깃털옷을 입고, 다시 흰 닭으로 변하더니 날아가버렸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보석을 주워 복을 받았는데 역시 새해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 외에 浙江省 海鹽縣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분가할때 동생이 착한 것을 이용하여 형이 그를 속여 거의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어 보냈다. 연말이 되어 동생은 매우 곤란해져서 형에게 돈을 꾸러 갔으나 형은 매정하게도 거절하였다. 동생은 그의 처와 의논하여 집 뒤에 늪은 느티나무를 베어다 팔자고 했다.

그들이 그 나무에 도끼질을 하려고 할 때에 나무 위로 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우리가 이 나무

에 살고 있으니 제발 이 나무를 베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면 오늘 저녁 세 말, 세 되, 세 홉이 들어가는 자루를 준비하여 가지고 오세요"라고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 말, 세 되, 세 홉이 들어가는 자루를 만들었다. 밤이 깊어 나무 있는 곳으로 가서는 새를 따라 길을 갔다. 얼마 뒤 그들은 太陽國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천지가 황금이었다. 그들은 급히 황금을 자루 속에 담아 넣었는데 자루가 거의 다 차려고 할 때 새가 태양이 떠오르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 주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들은 이 황금을 가지고서 아주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였다. 그의 형이 이일을 듣고 그도 그대로 따라하였다. 그러나 욕심이 많아서 세 말, 세 되, 세 홉보다 훨씬 큰 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太陽國에 갔다. 새가 돌아가야 할 때를 알려 주며 전했는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황금을 긁어 모았다. 새는 혼자 날아 가버리고 마침 태양이 떠오르자 형은 산채로 타서 죽었다. 착한 동생이 새를 따라가 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도 새해와 관련되어 발생한 일이다. 이는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좋은 일을 기대하는 희망을 대변하고 있으며 특히 가난하거나 불우하고 착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이외에 새해와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호박 속에 보물이 나오는 이야기와 집안의 부뚜막귀신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 회를 기대해 보자. ㉞

방한중국교포와 하나님의 뜻

박 지 화

(본 선교회 복음전도단 교육부장)



(방한중국교포 초청잔치 때
교제 하는 모습)

근년들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친척방문으로 대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친척방문이라는 형식하에 돈을 만져보자는 목적으로 들어온 것일지 모르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안타까이 손짓하는 마게도니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게도니아인이 바울에게 손짓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듯이 중국교포들도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건너에서가 아닌 이곳 한국 땅에서.

이제 한국의 교회는 중국선교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주 800여명씩

인천항을 통하여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중국교포들을 어떻게 복음화시키는가에 중국선교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선교를 원하고 있다면 현시점에서 우리의 초점은 당연히 이들 방한중국교포들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선교의 현장이 중국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내로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교포전도사역은 중국어는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조금씩만 힘을 모으면 너무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추수 사역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본 선교회에서는 작년 11월 작은 규모의 전도단을 구성해 직접 전도사역에 나섰습니다. 매주 계속된 전도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무려 3,000명의 교포들을 보내어 주셨고 수많은 결신자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과 성도, 선교단체들의 협력으로 인하여 이들을 용송히 대접하고 푸짐한 선물까지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개월 기초양육을 마지막으로 사역이 중단되고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중국교포들의 생명은 그대로 방치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안타까와 하던

중 부족하지만 다시 우리가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복음전도단을 재조직하여 지난 4월 22일 CCC회관 현숙실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또 중국교포 위로잔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날 중국교포 80여 명과 봉사요원 30여 명이 어우러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후 매주 연속으로 집회를 갖게 되었고 모두 6차에 걸쳐서 약 300여 명의 교포들이 다녀갔으며 그중 90%가 결신하였습니다. 지금은 집회를 계속하는 한편 결신한 자들을 중심으로 심방과 양육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15명의 심방요원을 구성하여 결신한 중국교포들을 방문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위로 격려해주며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교포들은 우리들의 관심에 감사하며 곧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발로임을 알고 예수에 대해 학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6월 10일~7월 5일까지 제자훈련을 실시하기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일시적으로 단기사역이 아니고 장기사역으로서 중국교포가 이 땅에 찾아오는 것이 그 칠때까지 부단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계속하여 중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을 이 땅에 보내고 계십니다. 이들은 바로 오늘날의 한국판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로 자진해서 이동했든지, 전쟁의 결과로 강제로 이동되었거나 추방되었든지 간에 바로 그 흩어진 나그네들(디아스포라)이 있었기에 지중해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최고의 전도자들이요 또한 열렬

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구약성서가 헬라어로 번역될 수 있었고 칠십인역 구약성경이 존재하였으며 회당역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중국 각처에서 무수한 교포들이 한국땅에 모여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복음화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중국 현지에서 선교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얼마만큼 효과적이며 경제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곳에서 양육받은 교포들이 귀국한 뒤에 또 하나의 전도자로 선교자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중국복음화는 틀림없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저 중국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8~20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름도 빛도 없이 겸손하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다해 주께 바칩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혀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14억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말없는 헌신과 땀의 수고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룩한 사업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연 교회

- 평산교회 -

“이 세계에서 한국처럼 복음이 불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의 불길을 땅 끝을 향한 선교의 불길로 바꿔 간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하늘 비상구를 활짝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의 새 시대를 여시려고 하나님은 비상구를 여시고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역사의 흐름이 이스라엘을 통한 구약의 즐거리일 것입니다(선교적 차원에서). 오늘날,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님은 하늘의 비상구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한 때는 서구가 이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제 이 선교의 불길은 동방의 작은 땅, 한국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가야 할 복음의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합시다.”

위글은 『평산소식』에 실린 평산교회 담임목사인 신장섭 목사의 선교메세지 중 일부이다.

5월 어느 화창한 날에 중국어 문선교회 취재팀은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행신리 633-33에



(선교사 파송예배 후)

자리한 평산교회를 찾았다. 등직하신 모습의 목사님과 이철 선교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설립된지 올해가 6년째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수는 80여 명이라는 평산교회는 약간 언덕진곳에 정갈하고도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작은 교회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 교회에서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 선교사 파송, 아시아의 싱가포르에 선교사 파송 및 선교센터 건립, 방글라데시 아와 중국에 교회 설립, 국내의 미자립교회 지원(본 선교회도 포함)과 신학생 및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극 후원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교회가 처음부터 중국을 선교 대상국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었다. 신목사는 어려서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들을 통하여 중국을 선교 대상국으로 삼도록 허락하셨고 또 일을 시작하도록 세미한 부분까지 준비시켜 주셨다.

현재 중국선교사인 이철 선교사와의 만남은 89년 7월 이철 선교사가 평산교회로 이적해오면서 이루어졌다. 성균관대학원 중문과 박사과정을 이수 중이던 이철 선생은 선교보다는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에게 대학 전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했다.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공부했고, 기도해 왔었던 그 자리를 선교를 위해 포기해야 했을 때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시편 37:5)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갈 길을 정했다. 신목사와의 만남 이후에 그는 새롭게 변화되

어 있었던 것이다.

90년 6월 류수현 집사(중국어 문선교회 회원)를 하나님께서 평산교회로 보내주셨다. 류집사는 중국에서 개척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김루디아 권사와 4년간 신앙편팔을 맺어 서신을 왕래하고 있었다. 신목사가 류집사 집을 심방했을 때 류집사를 통해 김권사가 보내온 편지를 보게 되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김권사의 편지들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교회가 새로 건축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의 글이 마지막 편지였다.

그 이후 한동안 편지가 끊겼다가 90년 9월 류집사는 다시 김권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중국에서 환란과 핍박을 받고 있으므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였다. 교회가 외국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하여 그 교회를 중국 정부에서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교회를 새로 세우기 위해 건물 계약금 400만원과 기타 여행 경비까지 550만원이 필요했다. 이 작은 교회인 평산교회에게 그것은 큰 돈이었지만 성도들의 특별헌금으로 어렵게 채워졌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중국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중국선교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해 오던 신목사와 성도들은 그 편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명령장으로 여기고 선교를 시작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 시작은 평산교회를 향한 하

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선교는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나자 하나님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 주셨고, 새롭게 선교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주셨다.

2차 중국선교여행을 계획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건물을 준비하는 데 1,000만원이 필요했다.

기도 끝에 교회에서 교육관을 짓기 위해 사놓았던 땅(지금은 교육관이 들어서 있다)을 농협에 잡히고 천만 원 용자를 받았다. 이철 선교사는 마침내 중국에 가서 중도금을 지불하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

현재 그 농협 용자금은 다 갚았고, 빛을 얻어서까지 선교에 전력했던 평산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선교 시작 1년만에 교회 헌금이 1,000% 성장하게 되었다.

3차 중국전도여행(3월 12일 -27일)은 이철 선교사와 신장섭 목사가 동행했다. 이 기간에 중국 조선족 115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350명이 성찬식에 참여하였으며 15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다. 삼자교회에까지도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와 ×× 두 곳에 교회를 세워 주기도 했다. 중국의 시골은 한국돈 500만원이면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는 실정이었다.

중국 동북부의 신앙의 모델이 기도 한 Y장로를 만나서 신앙

안에서 교제할 수 있었는데 피차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중국 문화대혁명 때 목사가 순교당한 이후 아직도 다시 세우지 못한 P교회를 일으켜 달라고 Y장로는 간곡히 부탁했다. 500만원이면 다시 지을 수 있음을 알고 4차 여행 때 현금해 줄 것을 약속했다. 이 헌금은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첫 주일인 부활주일에 어느 집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중국 H교회에서 35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신목사는 특별히 십일조와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G교회를 찾아가보니 소문과는 다르게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신목사는 성도들에게 성전건축에 대해 설교하면서 앞으로 지급될 6월 보너스를 G교회 건축성금으로 내겠다고 먼저 모범을 보였다.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중국돈으로 100원, 150원씩 헌금하여 그 자리에서 6,000원(중국돈으로)이 모여졌다.

그 중 어떤 여성도는 100원을 헌금했는데, 그 자매는 다 헤어진 속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다. 김치를 팔아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 아낌없이 내 놓는 것을 보고 신목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기도 했다.

“헌금은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신목사는 덧붙였다.

신목사는 8월 12일 4차 중국 선교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그때 필요한 선교비는 이천만 원인데 이미 천만 원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준비된 상태이다.

선교헌금은 잘 쓰여져야 한다. 중국에 가서 돈만 전해주고 선교했다고 만족해서는 안된다. 물론 물질이 부족한 그들에게 물질로도 도와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신목사는 중국에서 조선족들에게 선교할 때 평산교회가 결코 큰 교회가 아니지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준다.

“우리 평산교회도 작지만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자기 손으로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게 되면 세계에서 일등 가는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즉각 순종하지 않고 망설이면 마귀가 틈을 타서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순종할 때는 꼭 기적이 따르더라고 말씀하는 신목사는 앞으로 해외에 선교센타를 건립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

싱가폴에 2년 내에 4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할 계획(3억 예산)이다. 선교사들이 쉬고 싶을 때 언제나 와서 쉬 수 있게 하고 선교에 뜻을



(왼쪽부터 사모, 신목사, 오른쪽 두번째가 이선교사)

둔 젊은 후진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미 무명의 성도 한 분이 300만원을 헌금해 주었고 2년 내에 하나님은 3억을 주셔서 선교센타를 건립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

중국선교와 싱가포르 선교센타 건립을 위해 이철 선교사가 6월 30일 싱가포르 파송될 예정이다.

91년도 평산교회의 선교계획을 보면,

1. 현지에 교회 설립
2. 필요한 비품 지원 및 일꾼 양성
3. 신학교 지원
4. 한국 목사가 들어가서 처 소장 교육
5. 병원선교와 학원선교 (움직이는 병원: 차에 비품을 갖추고 선교에 뜻을 둔 의료진이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게 하는 것과 중국이

개방 된다면 신학교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6. 미션기업건설

등이다. 이 계획을 보면서 느끼겠지만 신목사는 불혹을 넘어선 나이임에도, 젊은이 못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 오늘도 오목이처럼 다시 일어나 달린다. 그러나 사실 신목사의 그 열정은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목사는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3번째로 언더우드 목사에 의해 세워진 행주교회(행주산성 근처에 위치함)를 어려서부터 가족과 함께 다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신대학 1기생으로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제대 후 세상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신목사를 가까이서

키워주면서 제대하고 오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목사님이 제대하고 와보니 돌아가시고 안계셨다. 평소 영어를 잘했던 신목사는 미국유학에 뜻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을 너무 존경했었는데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마을에 상처를 받아 신학을 포기하고 직장생활을 했다.

다시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모와 신목사의 여동생(현 평산교회 전도사)의 권유에 의해서였다. 처음엔 화를 내면서 완강히 거부했으나 “목사가 안 되면 하나님이 불러 가신다”는 어떤 전도사의 말이 머리에 박혔고 그 때부터 회사일이 싫어지기 시작해서 그 굵게 묶여져 있던 세상줄을 과감히 끊어 버렸다고 한다.

90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달이 행주교회 100주년 기념의 달이기도 했다. 부끄럽게도 100년의 역사를 지닌 행주교회에서 그 동안 단 한 명의 목사도 배출하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신목사가 행주교회 출신으로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그 달에 첫번째 목사로 배출된 것이다. 그것은 4대째 믿음의 뿌리 덕분이라며 신목사는 믿음의 조상들께 감사드렸다.

신목사는 젊은 시절부터 선교에 꿈이 있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늘 가지고 있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선교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아픈 경험도 있다. 그때 마침 한 친구의 권유도 있고 해서 도망가듯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다. 이 곳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새로운 마음과 확신, 평강을 주셨다. 그래서 실패를 딛고 겸손히 다시 일어나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신목사에게 영향을 준 두분이 있다. 첫번째는 장로님이신 아버지다. 신목사의 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계시는데 노안으로 앞이 잘 안 보이신다. 그 장로님은 기도가 생활이라 2층 기도실에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하시는데 한 번에 3시간을 기도하신다. 신목사가 힘있게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장로님이신 신목사의 아버지의 기도의 힘 때문이다.

그리고 두번째 사람은 동역자이자 내조자인 사모이다. 신학을 하도록 먼저 권한 분이 사모였고, 신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면 뒷자리에 앉아서 손뼉을 치며 찬양하여 좋아했다. 목사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남자가 해야 할 일까지도 모두 사모가 알아서 하기도 했고 늘 “신목사가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큰 목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어떤 큰 일을 결정할 때 사모가 먼저 긍정적인 시각에서 일을 추진하는 쪽이다.

처음 선교를 시작하겠다고 강단에서 선포하자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교회안을 덮어 온통 캄캄해지고, 교인들의 얼굴이 흑색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았다. 사탄이 신목사의 입을 막았고 창피하다는 마음을 심어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선교를 시작해야 하고 전체 헌금액의 1/10 이라도 꼭 선교헌금에 쓰여져야 한다.”



주어 그는 또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모는 할 수 있다고 보았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면서 “너희들이 먼저 시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실망하는 목사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목사안수시에 들어온 축의금을 다 선교헌금으로 바치자며 먼저 선교에 열심을 낸 헌신적인 사모, 기도하는 사모가 옆에 있기에 오늘의 신목사가 있을 수 있었다.

평산교회는 회계장부가 항상 ‘0’인 상태라고 한다.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선교를 위해서, 마땅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선교를 시작해야 하고 전체 헌금액의 1/10 이라도 꼭 선교헌금에 쓰여져야 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키워야 하는 것 역시 목회자의 책임입니다.”라고 신목사는 말한다.

이 평산교회는 현재 전체 헌금의 70%가 선교비로 쓰여지고 있다.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10명 중 9명은 반대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인지 교인이 숫적으로는 많지 않다. 그러나 현재 출석하는 80명은 정예화되어 있고 1인이 1,000을 대신한다고 신목사는 믿고 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는 그 초점을 선교에 맞추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한국은 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가장 축복을 받는 길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교회를 짓는 것, 주의 종을 키우는 것 등이 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철 선교사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다 결국 선교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역사(?)를 이룬 신목사댁의 식탁에서 우리는 사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꿀물을 대접받았다.

신목사의 축복기도까지 받고 취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우리의 가슴까지도 선교의 열기로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신목사가 가장 좋아하며 그 말씀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했던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이고 입속에서 중얼거려 보았다.

“너는 네 식물을 물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글·석귀희)

☎선교 도서 안내☎

- | | |
|-------------------------------------|--------|
|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전문인협력기구) | 3,000원 |
|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3,500원 |

☎교재 안내☎

- | | |
|--------------------------------|--------|
| 1. 中國語 聖經
(신약+ 시편+ 잠언:주음부호) | 5,000원 |
| 2. 使徒信經, 主禱文 외 | 1,500원 |
| 3. 經文背誦 | 1,500원 |
| 4. 睡夢鄉 | 1,000원 |
| 5. 飛行屋 | 1,000원 |
| 6. 初級中國語 I | 2,000원 |
| 7. 初級中國語 II | 2,100원 |
| 8. 中國文化二十講 | 5,000원 |
| 9. 예수 讚美(중국어 찬양집) | 3,000원 |

☎Tape 안내☎

- | | |
|-------------------|--------|
|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 1,000원 |
| 2. 經文背誦 | 1,000원 |
| 3. 睡夢鄉 | 1,000원 |
| 4. 飛行屋 | 1,000원 |
| 5. 初級中國語 I (10개) | 6,000원 |
| 6. 初級中國語 II (10개) | 6,000원 |
| 7. 中國文化二十講 (3개) | 1,500원 |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우편으로 신청해 주세요.

(TEL. 594-8038)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

- 廣州市 大馬站 가정교회 林獻羔의 간증 -

(林獻羔 原著, 陳振衣 改寫)

(번역부 제공)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사46: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내 일생에 이 두말씀은 언제나 진실이었다.

이미 복중에서 나올때부터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내가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아울러 獻羔(어린양 그리스도께 바친다는 뜻)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뒤 아버지는 사무엘(Samuel)이라는 영문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광둥어로 '林' 字의 발음을 영문으로 'Lum'이라 적는데 그것을 약간 고쳐 'Lamb'(어린양이라는 뜻)으로 하여 성명은 Samuel Lamb 이 되었다.

나의 본적은 광동성 臺山縣 大嶺東界리이며 1924년 10월 4일 마카오의 白馬巷에서 태어났

다. 당시 아버지 林巴울(본명: 林權章)은 白馬巷의 침례교 목사였고, 외할아버지 되시는 張允文도 침례교 목사였으며 게다가 외할머니와 어머니(張省西), 삼촌 및 愛靈, 愛思, 愛眞의 세 누이와 사촌누이 愛潔, 사촌동생 耀基 등 가족 성원이 모두 크리스찬이었다. 매저녁집회에 참석하기 쉽도록 우리집은 가정 집회소가 옮기는 곳을 따라 이사를 다녔다. 이와 같은 환경은 내가 어려서부터 집회를 사랑하고 후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뿌리가 되었다.

사탄이 나의 생명을 찾았으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어린 시절의 지난 일들은 대부분 잊어버렸으나 한 가지 사건은 내가 영원히 잊을 수 없다.

그 것은 광주에 살던 다섯살 때의 일이다. 내가 심한 디프테리아에 걸려 아버지는 나를 양광 침례교 병원에 데려갔다. 미국인 의사 찰리는 위독하므로 성대를 절개하여 관을 끼워 넣어 호흡케 하자고 말했으나 설

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호전될 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 아버지는 나를 안고 집으로 되돌아와서 여러 성도들을 청하여 철야기도를 하였는데, 다음 날 내 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되었다.

디프테리아에 걸렸던 이 일에서 하나님은 두가지 소중한 것을 보게 하셨다. 하나는 유년기에 사탄은 나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설령 내가 죽지 않더라도 성대가 상하여 훗날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며 두번째는 본디 나는 죽은 생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며, 나의 남은 생은 반드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고난 받으며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얼마 후 우리 집은 惠愛中路(지금의 中山五路) 大馬站 35번지로 이사하였는데 이 집은 廣州城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으나 조용하였다. 실로 하나님이 몇 십 년 전에 우리를 위해 좋은 집회장소를 예비해 주신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았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줄곧 주를 사랑했지만 세상도 사랑하였다. 1936년 여름, 나는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長洲로 피서를 갔다. 침례교의 노목사 張雲如의 집전하에 해변에서 세례를 받았다. 37년 여름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長洲로 피서가 있을때 '7.7 蘆溝橋' 사변이 터졌다. 나는 皇家書院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후일 皇仁書院으로 바꾸었다. 이 때 아버지는 싱가포르에서 편지를 보내어 내가 신학을 공부할 것을 권했는데 나는 학업을 다 마치고 나서 얘기하자고 핑계를 대며 거절하였다. 그 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였고 홍콩은 계속 폭격을 받아 나는 石塘咀의 친척집에서 숨어지내며 기도하고 성경을 보게 되었고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날 石塘咀도 공격을 받아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는 堅道침례교로 피난을 가는 수 밖에 없었다. 보통때 같으면 산길의 첩경으로 가로질러 갔을 터인데 그 날은 皇后大路로 갔다. 내가 고개를 움켜 잡고 큰 길을 건넌을 때 한 차례의 폭격이 내가 평소에 다니던 산길을 폭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만약 그 날 평소처럼 산길을 택해 걸었다면 아마 그대로 생매장되었으리라. 하나님은 나를 皇后大路로 가도

록 인도하셨던 것이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본별하였다.

외가집에는 많은 신앙서적이 있어서 鑿慶으로 피난하여 한가하게 지내면서 이런 책들을 꺼내 읽었다. 뜻밖에도 신앙서적을 읽을수록 마음은 더욱 뜨겁게 변화되었고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할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42년 9월에 建道신학원에 정식으로 입학하여 예과에서 공부하고 1년 뒤에 본과로 진학하였다. 그 후 어머니와 누이도 梧州로 와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현 옷가지를 저당잡혀 생활할 정도로 몹시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

애석하게도 본과 1학년의 여름방학이 끝나기도 전해 梧州에 소개령(疏開令)이 선포되어 우리는 鵬化로 옮겨왔다. 鵬化는 도적들의 소굴이었지만 이곳으로 도망은 광동인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고 그 중에는 建道신학교의 동창생도 몇몇이 있었다. 우리는 저녁이면 언제나 함께 모여 찬송과 기도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고 낮에는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였다. 한 번은 우리가 어느 마을에서 전도를 할 때 매국 앞잡이라고 오해를 받아 지방공소에 끌려가 수감되었다. 소장은 우리가 긴 옷을 입

고 짚신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을 끌고와서 밀하겠다거나? 이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빨리 돌려보내도록 해!" 라고 했다. 우리는 기쁨에 가득차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그 해 45년 8월 14일 일본군이 항복을 선언하였다. 9월 나는 光復北第六甫水脚 萬善堂 지회의 보조전도사가 되었고, 46년 초 寧路 錫安堂의 전도사로 옮겨가 청년집회를 열고 성가대를 조직했으며 49년에는 다시 興華침례교의 전도사로 옮겨갔다.

그 뒤 삼촌은 나를 대신하여 '무디통신강좌' 과정을 신청하여 수학하게 하였다.

나의 학업과정은 곡절이 많아 평생토록 국민학교 졸업장 하나밖에 받지 못했다. 홍콩의 皇仁書院, 廣西梧州의 建道성경학교에서의 수학은 도시 함락으로 인해 졸업하지 못했고 최후의 미국 무디통신강좌 역시 49년 중국이 공산화됨으로서 끝까지 마칠 수 없었다.

大馬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다.

50년 10월에 廣洲에서의 집회 장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大馬站으로 집회장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공회의 명칭도 내세우지도 않았고 또한 "基

督徒 聚會處(所)"도 아니었으므로 "大馬站福音堂"이라는 명칭을 채택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50년말 나는 마지막으로 홍콩에 가서 설교를 하였고, 얼마뒤 長州의 神召會신학원에서 교원으로 초빙한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廣州의 복음화를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히 11:25)는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회답을 보내었다.

51년 7월4일 나는 신중한 기도 끝에 10가지의 응답 증거를 받고 나서야 李聖賢과 廣大堂에서 결혼을 하였다. 이듬해 사내 아이가 태어났으나 서른 세 시간밖에 살지 못했다. 53년 3월 큰딸 한나가 출생하였고 54년 12월 작은 아들 예복이 태어났다.

진리를 지키므로 廣州의 위험 인물로 지목되다.

53년초 사촌 동생이 복학을 하게 되어 전송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왕명도 선생을 방문했다. 나는 그의 서적을 애독하였고 더욱이 항전시기에 굶허지 않는 자세로 믿음을 지킨 그에게 존경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서신왕래를 하고 있던 터였다. 우리가 만나 뒤 그는 "나는 북

경의 위험인물이고 자네는 광주의 위험인물이 자네가 여기와서 설상가상으로 위험이 커진 것이네!" 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 주일 동안 즐겁게 지내면서 함께 사진을 찍은 뒤(이 사진이 훗날 내가 王明道의 앞잡이 수하라는 증거로 채택되었다) 그는 기차 플랫폼까지 따라 들어와 전송해 주었다.

반혁명분자숙청 때 처음으로 투옥 되다.

상황은 수시로 변화하여 55년 전반기에 전개된 '反胡風運動'(胡風: 중공의 문예이론 비평가)은 '반혁명분자숙청운동'으로 이어졌다. 8월 8일 왕명도의 체포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들도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옷가지와 수건, 칫솔 등 일용품을 챙겨놓고 언제든지 의(義)를 실천하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9월 14일 저녁 집회 10시쯤에 갑자기 십여명의 사람이 들어와 우리를 꿰어앉히고 아무말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와 王國顯, 張耀生을 각각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심문하였다. 결국 傅榮光과 黃煥瑛을 제외하고 동역자들은 모두 챙겨 두었던 옷가지를 가지고 수감에 채어 체포되었다.

나는 黃華路 第一 구치소로 끌려가 반혁명분자라는 죄목으로 철야심문을 받았다. 廣州의 <南方日報>에는 표제자를 크게

실고 "광주 기독교는 林獻羔, 王國顯, 張耀生의 반혁명 집단을 적발하여 체포하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三自會에서도 9월 27일 '大馬站反革命集團'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강단에 올라와 성토를 한 이들은 모두 우리 福音會堂의 지체들은 아니었다. 늙은 李師太 자매가 강단에 호명되어 올라가 나를 규탄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안정된 음성으로 "이전에 나는 진리를 알지 못하였고 구원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나를 이런 것들을 알게 이끌어 주었고, 그는 아주 좋은..." 이라고 말하였는데 물론 말을 다 마치지 못하고 끌려 내려왔다. 그 사람들은 내가 반혁명 분자라는 증거를 찾지 못하자 녹음기를 가져다가 나를 무고했다. 그 녹음 테이프는 공판 예심원들이 나에게 관한 자료들을 고쳐가지고 와서는 그들의 상급자에게 들려주기 위해 나에게 읽으라고 한 것이었다. 그 때 나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들은 이것은 심문이 아니라 다만 한 번 읽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뜻밖에도 이것이 녹음되어 증거로 채택되었다.

12월 18일 나는 倉邊路 第二 구치소로, 5월 22일에는 다시 黃華路 第一 구치소로 옮겨졌다.

10월 어느 날 공판예심원 <天風>을 나에게 보여 주었는데 거기에 王明道의 사상반성문이 있

었다. 이를 본 내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나는 기회를 타서 <天風>에 인용되어 있는 성경을 베껴 써서 같이 수감되어 있는 梁樹棟에게 성경구절을 읽게 하였는데 후일 그는 大馬站에서 세례를 받았다. 57년 1월 28일 우리는 석방되었다. 심문에 있어서도 어떤 죄목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大馬站으로 돌아와 전도생활을 계속 하였다.

三自혁신운동 중에 두번째 투옥되다.

57년말 형세가 다시금 급변하고 있었다. 나는 58년 12월말 「기독교 대회」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대회는 9일 간 계속되었는데 회의에 출석한 이는 24개 교파의 목회자들과 신도로 백여 명을 헤아렸다. 이 대회에 참석한 뒤에야 기독교에서 주관한 것임을 알았다. 대회중에 갖가지 사이비 교리로써 우리를 三自에 가담하도록 설득하였다. 이같은 분위기에 이끌려 三自에 가담하는 것이 자유롭게 순수한 진리를 전할 수 있겠다고 여겨, 돌아가서 교회 동역자들을 설득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감사하게도 3월 12일 <南方日報>에 내가 廣州 기독교 아홉명의 우파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실려 있었다. 5월 30일 저녁 10시경에 나는 두번째로 투옥되었는데 (원래 우파 분자는

확실한 범법사실 외에는 체포되는 경우란 없다.), 黃華路 第一 구치소로 호송되어 간단한 심문을 거친 뒤, 9월에 倉邊路 第二 구치소로 옮겨졌다. 나는 이미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각오를 하였기에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가지고 간 회람어 성경을 꺼내어 읽었다.

이십 년의 징역에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보존시키셨다.

11월 21일 판결을 받았다. 20년 징역에 5년간 정치권리 박탈이었다. 죄명은 '반혁명, 친제국주의, 반소주의자 왕명도의 앞잡이 수하'라는 것이었다. 사흘 뒤 상고를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59년 1월 25일 韶關犁市 第二 감옥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茶山농장으로 옮겨져 중노동조에서 흙짐을 지는 일을 하였는데 체력이 달려서 언제나 작업량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20년까지 살아남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감옥에서 죽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여겼다. 1개월 뒤 「노약자조」로 조정되었고, 노동량은 훨씬 경감되었다. 그 뒤 문장력이 있다고 해서 기록원으로 배치되었고 소조장이 되었다. 9월에 다시 자유공작조로 나누면서 노약자조원들의 머리를 깎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전 建道에서 전 학생

들에게 이발술을 가르쳤는데 바로 여기에서 쓸곳을 만난 것이었다.

63년 1월 내가 興華침례교 전도사 王永勳를 이발해 주면서 그가 신약성경 1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는 빌려다가 베꼈다. 그런데 누군가가 보고를 하여 집중훈련부대로 옮겨졌다. 집중훈련부대는 각부대의 범법자와 기강이탈자를 집중훈련시키는 부대였는데 그 곳에서 나는 노동은 하지 않고 성경을 외어야 되었다. (이것은 형벌로서 성경을 읽다 잡히면 성경을 한자도 빼지 않고 외우게 한다-역자주) 이전 建道시절 일찍이 바울서신과 시편을 많이 외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는데 지금에서야 바로 감옥에 갇힌 때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뒤 山西탄광으로 이송됐는데 체력이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몇차례 작업조가 바뀌다가, 힘은 별로 들지 않았지만 매우 위험한 일을 맡게 되었다. 작은 쇠갈고리를 거는 일이었는데 한 대 한대 올라오는 석탄운송 트럭을 쇠갈고리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민첩한 손놀림이 아니면 언제든지 손가락이 눌러 깨어질 수 있었다. 나는 이 일을 15년간 했으며 쇠갈고리를 연결시킨 것도 200만여 차였다. 하나님께서 줄곧 보호하사 비록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기적처럼 무사할 수 있

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나의 생명을 보호하심은 나로 이후로 더욱 그를 잘 섬기고, 그를 위해 목숨조차 내놓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하셨다.

형기가 만료되고 廣州로 돌아오다.

78년 5월 29일 20년의 형기가 만료되고 나는 대기조로 옮겨져 작업분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는 네 사람이 시체 한구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나를 이어서 “작은 쇠갈고리를 걸던” 젊은이였다. 그는 이삼 개월 그 일을 했고, 몸놀림이 나보다 민첩한데도 그는 죽고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외에 내가 무슨말을 할 수 있겠는가?

6월 14일 아침 나는 지도원 사무실로 불려가서 廣州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그 때 나의 심정은 마치 야곱이 요셉의 음성을 들었을 때와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왜 광주로 되돌아 오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병환중의 어머니께서 1년 후 소천하셨는데 78세 되던 해였다.

大馬站에서의 사역을 회복하고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먼저 집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온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후 점점 주님이 인

도하는 가정교회로 되었다.

79년 9월 大馬站에서의 집회를 다시 회복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매년 4,5명에 불과했다. 그 뒤 급속히 성장하였다.


81년 2월에는 3층에서 설교를 하고 2층은 학생기로서 설교를 방송하였다. 그 뒤 나는 비록 5년의 부가형이 남아 있어 집회의 자유가 없어 대집회를 반 년간 중단해야 했지만 오히려 이 반 년 동안 남아버린 건물을 다 시금 수리할 수 있었다. 실로 하나님의 멋진 인도하심이었다. 지금까지 여기서 세례를 받은 형제자매는 43차례에 걸쳐 모두 1364명(80년 7월 6일부터 88년 10월 4일까지 기간)이었다. 매 주일 모두 3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가지며 때로 적지 않은 외국 신자 등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도 하였다. 미국 대통령 레이건도 성경 한권과 필기도구 하나와 사진 한장을 보내왔다. 해외 신자들의 지지는 우리를 격려, 고무시켰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88년 8월에서 12월 사이에 공안국에서는 6차례 나를 찾아와 이야기를 하면서 三自애국조직에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할 뿐이며 우리는 어떤 종파에 속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대연합'으로 혼잡해지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을 힘써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는 것만이 성경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죽기까지 충성하리.

내가 비록 몇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 나는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사 후퇴하지 않도록 기도했다. 王明道가 82년에 廣州에 왔을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두려움에 넘어진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러했다. 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며, 고난받은 후에 실패하지 말며, 또한 물질로 인하여 세상을 사랑하지 말것을 권고하며, 외국의 신도들도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 차지도 덤지도 않은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언제든지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권고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2:10)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도와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뵈을 때까지 또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中國與教會」 70期 중에서)

최근 중국 동향

종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權皓景 목사와 산하기구인 국제위원회의 김소영 위원장 등 7명의 목회자가 5월 21일 중국에 간다.

KNCC회원 목회자들의 이번 중국방문은 지난 2월초 瀟洲에서 열렸던 세계교회협의회(WCC)총회에 참가한 중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 목회자가 그곳의 초청을 받아 목회자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91. 4. 30)

* 오는 1997년 중국정부의 관할로 이양될 예정인 홍콩이 이른바 '이탈'현상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목회자의 수도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이곳 교회 지도자들이 밝혔다.

「사명감 있는 젊은이」이란 단체의 동아시아국장 개리 스티븐슨 씨에 의하면 사업가와 전문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홍콩 이탈자 대열에 목회자들도 가세하고 있으며 지난 90년 한 해 동안에도 6만의 인구 가운데 약 6백만 명이 홍콩을 빠져 나갔다는 것.

현재 홍콩의 기독교인 수는 전 인구의 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크리스찬신문 91. 5. 4)

* 한-중간 종교우호교류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 목사 21명이 중국정부의 정식초청으로 오는 6월 26일 중국에 입국한다.

중국 북경시 종교사업국과 삼자애국운동위원회는 한국의 신현군 목사 등 21명을 공식으로 초청했는데 이는 한중종교교류로는 최초의 것으로 앞으로 활발한 중국선교가 예상된다.

(기독교연합신문 91. 5. 10)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호경 총무는 3일 교

회협 총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0일부터 1일까지 중국교회협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상해, 남경, 심양, 연길, 도문 등 현지 교회를 순회 방문한 결과를 밝혔다.

중국교회의 상황에 대해 권총무는 "중국교회가 가난한 것으로 한국교회는 알고 있으나 중국교회는 가난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삶의 스타일대로 자족한 가운데 있다"면서 "중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회를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총무는 특히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있다고 중국교회지도자들에게 말했으나 중국교회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대답해 당혹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는 현재 1천만 명 정도의 교인이 있으며 6천 내지 7천 개 교회와 2만 개의 집회소, 14개의 신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연합신문 91. 6. 9)

* 미국에 본부를 둔 <NINI통신>은 중국정부가 한국을 비롯하여 최근 부쩍 늘어난 외국 종교기관에 의한 "종교활동의 심각한 침투" 현상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힌 중국 정부의 내부문서를 일부 보도했다.

이 문서는 외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그들의 선교활동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반정부 성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정부 단체들이 그런 단체들에 대해 단속을 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문서는 외국 종교단체가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만도 국경에서 24만장의 종교책자와 2천여개의 녹음기와 비디오 테이프를 압수했다고 것. 이 문서는 특히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펴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 단체와 소수민족 부락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기독교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홍콩 중국교회연구소의 한 임원은 이에

* 중국은 소련과 동유럽의 무기판매가 주춤함을 이용,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신형미사일의 대외판매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紙가 10일 北京의 서방외교관 및 군사전문가들을 인용, 1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조선일보 1991. 6. 11)

경 제

* 3월말 6.4 天安門사태관련자에 대한 사법절차를 모두 마무리지었고 국제무대 복귀에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중국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났다.

美國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中國에 대한 무역에서의 최혜국대우 기간 연장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은 지난해 對美무역흑자가 1백4억 달러였다. 89년보다 42억 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최혜국대우 연장여부는 中國의 국제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있을 것이다. (중앙일보 91. 4. 22)

* 中國의 공업생산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낮은 품질로 국산품이 외면당해 정부가 큰 고민을 해왔다.

이에따라 中國정부는 올해를 「품질향상의 해」로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쌓여온 유통재고 2백억 원(약 2조7천억 원) 상당의 소비재를 4월부터 6월까지 30% 할인판매키로 했는데 워낙 국산품의 인기가 낮아 얼마나 재고가 소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중앙일보 91. 4. 23)

* 중국이 다음달부터 쌀 등 주요식품 값을 대폭 인상키로 한것은 天安門사태 이후 미뤄져왔던 경제체제 개혁을 재가동하는 靑信號로 풀이된다.

이번 가격인상으로 주식인 쌀과 밀, 그리고 중국음식의 필수요소인 식용류값이 대폭 오르게 되어 국민들의 가계에 미칠 영향과 이에따른 사회적 파장은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 중앙일보 4. 25, 경향신문 4.25)

* 정부는 韓·中수교 이전이라도 中國과 非정부차원의 무역·관세·이중과세 방지·항공협정 등 4개 경제관련 협정을 체결해나갈 방침이다.

盧載源 駐中무역대표부 代表는 『中國측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韓·中경협조사단 방중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91. 4. 24)

* 정부는 중국내 조선족 자치구인 延邊에 「南北자유시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연변지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해마다 1만5천여 명 정도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이 지역을 찾는 남북한 사람은 9천여 명에 이른다.

(경향신문 91. 4. 16)

* 中國 山東省 靑島市와 한국의 토지개발공사는 청도시 경제기술개발구 안에 3.3km²에 이르는 한국기업 전용공단 조성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계획에 총3억 달러(약2천1백6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청도시 前副비서장 冷緒立이 7일 밝혔다. (조선일보 91. 5. 9)

* 임금이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중국의 임금이 한국보다 훨씬 낮은데 지난 3년 동안 중국의 원화가치가 대폭 절화되 가격경쟁에서 중국 상품이 우리나라 상품보다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91. 5. 15)

* 중국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업체 전용공단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내의 한국전용공단 건설은 우리측보다도 개방이 시급한 중국쪽에서 더욱 적극적이어서 정부방침만 확정되면 1~2년 이내에 공단건설이 완료될 것이라는 토지개발공사의 예측이다.

현재로서는 天津과 靑島 중 한곳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 91. 5. 17)

* 중국공산당은 공산통치 40여 년만에 처음으로 조만간 외국인들의 중국기업 주식매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당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많은 투자를 해외로 부터만이 아니라 수 년 간 많은 액수의 돈을 축적한 중국 국민들로 부터도 유치하기 위해 주식시장이 이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일보 91. 5. 10)

* 중국과 수교 이전이더라도 빠르면 올해 안에 한국의 무역진흥공사와 중국의 중국국제상회(CCPIT)간에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관세협정 등의 경제기본협정들이 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선일보 91. 5. 31)

사 회

* 요즘 中國은 「性革命」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공원에서건 거리에서건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청춘남녀들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못 될만큼 중국인들의 性풍속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性革命」은 현대적인 가족관 및 결혼관을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불어넣고 있는 한편, 성병-음란 출판물의 범람, 매춘-동성 연애 등의 현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선일보 91. 4. 15)

* 중국거주 한인교포에 대한 인력수입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3일 중국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제12차 亞·太지역 노동장관회의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중인 鄭 노동부 차관은 아시아지역 노동력이 동등 고용문제가 주의제로 다뤄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측과 중국거주 한인교포를 한국에 취업시키는 문제를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91. 4. 24)

* 중국 북경시 인구가 엄격한 인구통제책에도

불구, 1천만 명을 넘어섰다.

북경시장 陳希同은 24일 북경시 인민대표대회(시의회)에서 보고를 통해 북경시의 인구가 1천 32만 2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91. 4. 25)

* 중국은 올해를 1백만 명의 대학생들을 시골로 내려보내 노동봉사활동을 시킴으로써 文革 이래 최대규모의 사회주의 교육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文匯報 등 홍콩신문들이 26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60년대초부터 70년대중반까지 수백만 명의 지식분자와 청년학생들을 시골로 보내 이른바 「대중으로부터 학습」을 통한 재교육을 받게 했는데 흔히 「上山下鄉」이라 불리는 이 극좌노선의 정치운동은 文革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가 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향신문 91. 4. 27)

* 중국 협서성의 고대도시 西安이 극심한 물부족으로 지하수를 과다하게 끌어올려 사용하면서 발생한 지하수반의 공동화때문에 가라앉고 있으며 수백 년된 2천여 고대 건축물들도 붕괴 위기에 있다고. (중앙일보 91. 5. 14)

* 한국과 중국은 이번주 북경과 서울의 직항로 개설을 놓고 비밀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국의 한 기업이 밝혔다.

(조선, 중앙일보 91. 5. 25)

* 중국대륙이 공해병으로 앓고 있다. 유해가스 산림황폐 오존파괴 산성비 수질오염 쓰레기문제 등 중국이 당면한 갖가지 문제는 세계 모든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11억이란 세계최대의 인구를 갖고있는 광활한 땅덩어리 중국의 공해문제는 그 비중으로 봐 전지구적인 관심사이며 인접국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아일보 91. 4. 29)

宗教消息

접촉범위를 넓히는 대륙의 종교단체

중국의 5대 종교단체 및 종교사무국은 1990년 한 해 동안 15개국에서 온 20개 방문단을 접대하였다. 5대 종교단체 역시 20개의 방문단을 파견하여 10개 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였다. 중국 이슬람교협회는 1500명의 신도로 메카로 향하는 성지순례단을 조직하였다. 이밖에 이들 종교단체는 대만, 홍콩, 마카오의 종교단체와도 우호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도교협회는 몇 명의 홍콩, 대만 및 하와이의 저명한 도사들을 접대하였다. 이밖에 각단체는 대표를 파송하여 국제적인 대규모 종교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를 주관토록 했다.

종교사무국의 한 관리는 중국의 종교단체가 삼자원칙을 계승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쌍방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세계평화를 보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china daily" 1991. 1. 30)

강택민, 5대 종교지도자와 면담

중공중앙 총서기인 강택민(江澤民)은 1월 30일 전국 5대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한 중남해에서의 만찬석상에서 각종교는 정치적으로 단결하고 협력해야 하며 상호간의 신앙을 존중해야 하며 아울러 종교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 문제 등을 토론했다. 한다고 지적하였다.

초청에 응한 사람은 중국불교협회 회장 조박초(趙樸初),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주석 및 중국기독교협회 회장 정광훈(丁光訓), 중국천주교애국회주석 종회덕(宗懷德), 중국도교협회 회장 여우항(黎遇航), 중국이슬람교협회 회장 심하회(沈遐熙)였다. 이밖에 중국통전부 부장 정관근(丁關根), 부부장 장성작(張聲作), 종교사무국 국장 임무지(任務之) 등이 참석하였다.

강택민은 장차 법에 따라 종교에 대한 관리감

독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국의적대세력이 종교를 이용하여 침투하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人民日報》 1991.1.31)

중공은 강소성의 “靈靈教”를 금함

《天風》 2월호 보도에 따르면 강소 회음지역에는 “기독교 깃발을 걸고” 실제로는 불법적이며 위법적인 혼란현상인 봉건 미신조직이 나타났는데 그 조직은 스스로를 “靈靈教”라고 부른다.

창시자의 이름은 華雪和로 강소회 음현 사람인데 그는 원래 농촌의 민영학교 교사였다. 1985년 전후 화설화는 술양현(流陽縣)에서 이 현의 참여수교회의 이귀요(李貴瑤)와 결탁하여 “靈靈教”를 발기하였다. 《天風》은 이 조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는 오만방자하여 화설화와 여호와(耶和華)가 단지 한 글자의 차이만 있을 뿐임을 들어 화설화는 “두번째 예수”로서 예수가 두 번째로 도성육신(道成肉身: 사람의 몸으로 인간세상에 오심)하신 분이므로 따라서 화설화를 “華教主”로 칭하고 있다. 둘째는 요사스런 말로써 흑세무민하여 세상 끝날이 도래하였다고 선전한다. 셋째는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인명을 해치며 병자에게는 마귀가 들은 것이니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고 단지 마귀를 쫓아내기만 하면 병은 곧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 넷째는 교묘한 구실로 돈을 빼앗는다. 다섯째 집회활동이 빈번하고 은밀하며 가지수가 많다. 집회는 통상적으로 영가를 부르고 영무를 추는 것에서 시작한다.

보도에 따르면 영영교는 이미 관계부서에 의해 금지되었으며 우두머리들은 차례로 조사를 당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신도의 질이 너무 낮아서 이단사설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정부관계부서에서 위법활동을 제재할 때 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의견차이가 발생되어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

쳐버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天風》총98期, 1991.2.1)

호남교회의 발전

격월간지 《橋》의 보도에 따르면 호남성은 세례등록신자가 6만 명에 이르는데 도시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長沙의 당회는 대략 200에서 300명, 상표(湘潭), 주주(株州) 등지에는 300 내지 400명 정도가 있으며 대다수의 신도는 모두 농촌에 집중되어 있다. 85년 이래로 신도수가 끊임없이 증가하여 작년 성탄절에는 주주와 상표의 세례교인이 120명이 넘었다. 젊은이는 모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작년 성탄절에 장사 북당에서 세례받은 26인 가운데는 거의 절반이 젊은 사람이었고 저녁의 말씀사경회에서도 젊은이의 수가 특히 많았다.

참예수교회는 醴陵, 攸縣, 衡東, 湘音 등지에서 장족의 발전을 했다. 이를테면 醴陵에서는 1924년에 복음이 전파된 후 원래는 하나의 분구만 있었고 해방 전에는 신도가 천 명 가량 있었다. 현재는 4개의 예배당과 일곱 곳의 집회소에 신도가 각기 2000명 이상 있다.

침주지역에서는 교회의 분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곳의 신도수는 만 명 가량 되는데 그 중의 80%는 삼자에 속하며 “因信得救派(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呼喊派”와 “梅啟重生派”라 하는 “全範圍教會”라고 하는 두 파에 속한다. 삼자는 이들에게 일련의 금지와 타격을 주는 조치 외에도 “三自愛國學習班”을 설치하여 분열자들에 대처하고 있다.

1990년 6월 1일 호남성경학교에서는 복학예배를 거행하였는데 학생은 주로 농민이고 학생수는 현재 35명이며 나이는 18세에서 56세로 수준은 고급소학(국민학교5~6학년에 해당)에서 고급중학(고등학교에 해당)까지이다.

(《橋》45期, 1991.2)

《북경천주교회》의 화보 출판

북경천주교회의 발전상을 소개한 화보가 북경에서 발간되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바티칸에

서는 북경 및 남경교구설립 3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천주교에국회 부비서장 英木蘭은 이 《북경천주교회》라는 새 책은 작년에 모두 만 부가 발행되었으며 수집된 사진은 종교활동, 성당, 교구의 목양사업부와 사회봉사 및 해외교회와의 교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주로 북경천주교회의 지난 10년 간의 발전을 기념하고 아울러 교회 사역범위를 확장시키려는 것이다. 이 책은 또한 북경교구 300주년 기념특집이라고 볼 수 있다.

북경교구는 현재 4만 명을 초과하는 신도가 있으며 중국에서 위임한 傅鐵山 주교가 목양중에 있다. 남경교구의 교우는 5만 명이 넘는데 전혜민(錢惠民) 주교가 목양을 담당하고 있다.

(《公教報》1991.2.8)

학술적인 기독교잡지 첫 발간

중국 최초의 학술적인 기독교문화잡지인 《基督教文化評論》이 귀주성(貴州省)에서 출판되었다. 내용은 기독교가 사회, 경제, 정치, 법률, 풍속, 교육, 문예 등에 끼친 영향을 포함하는 학술적인 논문이나 번역 및 서평이다. 이 무크지는 이미 90년 4월과 8월 모두 두 차례 발행되었다.

부주편(副主編) 하광호(何光滄;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회원)는 현대 서구사회의 정신적 토대는 기독교문화이며 따라서 세계를 이해하려면 기독교문화에 대한 연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잡지의 해외 편집위원으로는 저명한 독일천주교 신학자 한스·쿵(漢斯昆; Hans Kung)을 비롯하여 옥스퍼드대학 종교과학교수 맥커리(麥奎利; John Macquarrie) 및 캐나다, 대만, 홍콩 등지의 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新華社通信》1991.2.12)

세계교회협의회가 기협(基協)을 회원으로

받아 들임

호주의 캔버라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제7회 전체회의는 2월 18일 표결을 통해 중국기독교협회를 받아들일 것

을 통과시킴으로써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기협과 이 세계적인 기독교조직이 분리된 국면을 끝맺었다.

이 회의에는 중국과 홍콩과 대만의 기독교대표들이 참석하였는데 소식에 의하면 기협회장 정광훈은 특별손님으로서 이 회의에 초대되었고 또 다른 두 명의 기협대표가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했는데 그들의 이름은 한문조(韓文藻), 심이번(沈以蕃)이다.

(《星島日報》1991.2.19, 《公教報》1991.3.8, 《莫忘神州》1991.3)

물질주의에 의해 수도사 지원이 약화됨

중국이 위임한 광둥성 강문(江門)교구 이반석(李磐石)주교의 언급에 의하면 화남지역의 물질주의의 팽배로 인하여 이 교구의 신부가 감소되는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 이 주교는 어미지향(漁米之鄉)인 주강(珠江)삼각지의 부유한 지역에서는 이 현상이 하나의 “독특한 문제”가 되었으며 물질의 흡인력이 省内의 젊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수도(修道)나 부르심에 대한 열정을 감소시켰으며 거기다가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으로 한 자녀 낳기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신도의 부모들도 자신들의 외아들이 신부가 되는 것을 더욱 원치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문(江門)교구에는 현재 여섯 명의 신부가 있는데 그들의 연령은 모두 다 70이 넘었으며 그들은 이 교구 각처에 흩어져 있는 20여 개의 성당의 2만의 교우들을 돌보아야 한다. 이 곳의 종교사무를 담당하는 한 관리도 신부 부족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장차 연로한 신부의 사역을 계승하고 교우와 새로이 개방된 성당을 돌볼 후계자가 없게 될 것을 걱정했다.

(“Asia Focus”1991.2.13, 《公教報》1991.3.1)

광서성, 귀주성의 교회근황

《天風》3월호의 보도에 따르면 광서성은 해방전에 신도가 만 명이 못되었는데 현재는 이미 4

만여 명으로 들어있고 개설된 예배처소도 250여 곳에 달하고 있다. 귀주에는 대략 15만 명의 신도와 예배당 197개소 집회장소 320여 곳과 목사, 장로, 교사, 전도인원이 모두 335명이 있는데 그중 묘족(苗族)이 180명이며 이족(彝族)이 97명이다. 계림(桂林), 남녕(南寧), 북해 등지의 교회는 청년신도도 비교적 많은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계림에서 1990년에 세례를 받은 70인 중에서 14명은 30세 이하의 청년이었다고 한다.

광서나 귀주교회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수민족 신도가 사는 지역이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귀주는 9%의 신도가 소수민족이다. 광서는 11개 소수민족마다 기독교인이 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곳의 소수민족 신도의 총수는 이미 한족(漢族)신도의 총수를 능가하며 전 지역의 90%의 집회장소가 모두 소수민족 거주지에 있다고 한다. 전국기독교협회는 묘어로 된 성경과 찬송가책을 인쇄하였다.

《天風》총99期 1991.3.1)

중공, 많은 당원이 종교를 믿게 됨

북경의 관영신문 보도에 따르면 날이 갈수록 많은 공산당원이 종교를 믿는다고 한다. 그들은 차라리 예배당이나 절에 갈지언정 당 조직회의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 AP통신사는 《農民日報》의 기사를 인용해서 종교활동은 시간과 장소와 인원 등 각 방면에서 당의 활동과 경쟁을 하게 되므로 관련부서가 그들을 모아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중공의 이미지를 해치고 당의 기층과 농촌건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모두 1억의 중국인민이 각종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최소한 1억 3000만 명은 되리라고 한다. (《明報》1991.3.14) ◆

(연구부 제공)

대만, 그 작은 땅의 찬양소리

박길순

1991년 1월 3일, 총신대 교수님과 대학생들, 대만에서 유학온 학생, 그리고 다른 선교단체의 자매들과 나, 이렇게 20명으로 구성된 우리 단체는 세 번에 걸친 모임으로 얼굴과 스케줄 정도만 조금씩 익힌 상태로 대만을 향해 여행길에 올랐다.

계속되는 함박눈을 대책없이 맞으면서 김포공항로 향했다. 공항까지의 버스길도 매우 밀렸지만 어떤이들은 우리의 일정을 축복하는 징조라고 즐거워하기도 했다. 비행기 시간이 지연되어 배는 고프고 지루했으나 앞날의 큰 기대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짧은 비행 후에 밝아진 대만 땅에 도착했다. 조금 전엔 한국에서 쌀쌀한 날씨에 함박눈을 맞았는데 두 시간 후엔 봄과 같이 따뜻한 대만의 겨울을 만나다니 신기하기조차 했다. 마중 나오신 한국 선교사님들, 현지인들 또 어디선가 풍겨오는 바닷내음까지도 따뜻하게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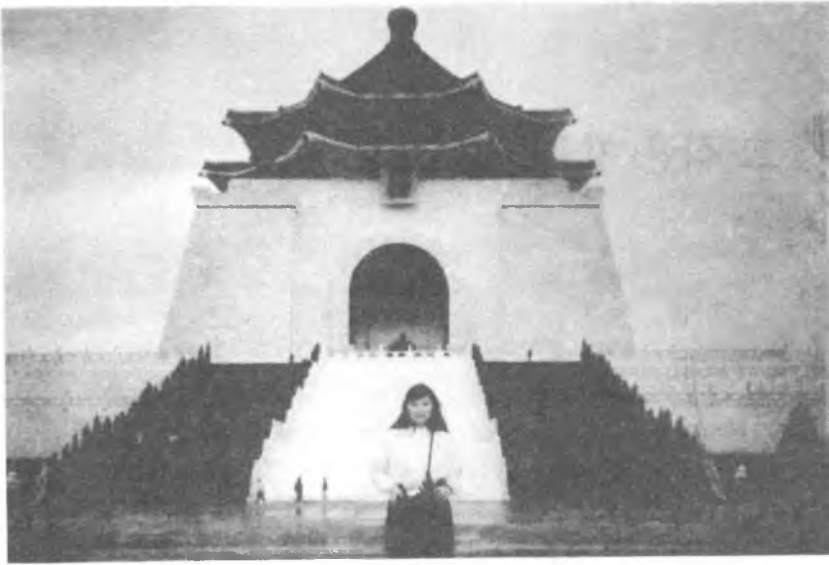
우리 일행 대부분에게는 5박6일, 일부에게는 9박10일로 주어진 일정의 첫 날이 시작됐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타이

베이 중화복음신학원으로 허드슨 테일러의 증손자이며 현 O.M.F. 총재로 싱가포르에 계신 제임스 테일러가 초대 원장으로 계셨던 곳이다. 6층 건물로 1,2층엔 선교사 자녀들 학교와 극동방송으로 사용되고 3층부터는 신학생들이 사용하는데 4억 정도의 건립비는 몇몇 크리스찬들의 기도로 시작, 약간의 헌금으로 마련 되었다고 한다(70년.5월). 예배실, 강의실, 도서실, 논문을 쓰기 위한 방들 외에 식당, 탁아소, 남녀별 혹은 가족별로 제공되는 기숙사 시설이 아주 훌륭했다. 칼빈주의 사상을 지닌 원장을 비롯해 성경에 대해 자유롭게 견해를 밝히며 가르치는 초교파적으로 구성된 교수진 하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그 곳의 교육 방침이라고 한다. 여름방학 3개월 중 2개월 이상은 특수 사역을 의무화 하여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12억 인구가 있는 중공 복음화에 대한 것이었다. 여러가지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있고 식

사비는 한 달에 45,000원 정도, 기숙사 사용비 30,000원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굉장히 싼데도 대부분의 대만인들은 차라리 막노동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고 있다.(그들의 새해 인사는 '돈 많이 버십시오'이다) 목회자의 길이 현재에도, 장래에도 가시적인 수입이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그 길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한다.

일본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만에서도 교회가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문명지이면서도 복음에 대해서는 암흑지인 그 곳의 현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자 하나 마치 어리석은 방백들이 종처럼 다니는 것과 같이(전10:5-7)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슬픈 현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이 슬픔을 직시할 수 있는 심령의 눈을 밝혀 주시도록(엡2:17-19) 기도하는 마음과 함께 도시 선교의 시급성을 느끼며 바울의 자세 -- ① 로마를 복음화 하면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을 앎 ② 할 수만 있으면 로마를 복음화하려 함 ③ 성령의 충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 를



(중정기념관에서)

배우고 싶었다.

또한 우리가 항상 닮고 싶어 하는 예수님과 같은 관심-"다른 고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노라"(눅 4:43)-을 새삼 지니고 싶었다. 대만, 중공, 일본 등의 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성장을 위해, 국가를 초월하여 믿는자들의 기도와 지지가 필요함을 느꼈다. 그러기 전에 한국인의 실정에선 아주 가까운 복벽의 동토가 우리의 숙제임을 잊어서는 아닐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시간상 충분히 관람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섬세함과 아름다움, 깨끗함, 자세한 비교 역사 설명서 부착 등 감탄사를 아낌없이 남겨두어도 괜찮을만한 곳이었다. 들며나며 마주치는 한국인 단체 여행객들이 다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눈에 띄기도 했다.

첫째날은 설레임과 피곤함으

로 그런대로 지낼수 있었지만 신학교 방문 이전부터 시작된 식사 문제가 좀 어려웠다. 이름도 모르는데다 익숙지 않은 냄새, 속에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듯한 음식 등등 한국에서는 양식이나 중화요리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한국화(Koreanizing)된 것이었는데... 자유롭게 해결하기로 한 점심식사 시간에는 삼삼오오 짝을 지어 흠어진 사이 한 자매와 나는 짝 가격으로 과일을 풍성히 산 것에 행복했고 한가한 찻집에서 걸들여진 커피와 대화에 만족해 했는데 다른 이들의 불평은 대단했다. 출국 전 교수님들의 조언으로 준비해 간 김치, 고추장 등이 그 날 저녁부터 바늘에 실처럼 따라 다녔다. 고향을 떠나야만 애국자가 되고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된다고 하더니, 음식에 좀 까다롭던 내가 잠깐잠깐의 여행을 통하여 이제는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 어디

서나 적응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결국 사람 사는 것은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있을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다. 더구나 지금 세계도처에는 굶어 죽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곳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은 10년 가까이 혹은 넘게 살아 오시면서 식성이 그 곳 체질로 바뀌었는지 용모도 현지인들과 같아 보였다.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고전9:22)하는 말씀이 떠올랐다.

두 대의 마이크로 버스로 나뉘어져 남부로 동부로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그저 이색적으로만 들리던' 중국어 복음송의 멜로디와 뜻 모르는 내용이 점차 친근해졌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곳으로 장소가 바뀌는 것도, 차 안에서 빵과 음료수로 아침 식사를 태우는 것에도 익숙해지고 있었다. 이젠 차장으로 밖의 신기한 경치에 눈을 잃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돌아가며 부르는 복음송에 열중하게 되었다. 복음송으로 우리모두가 하나가 되는 일,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되는 하모니를 하나님도 무척 기뻐하셨으리라.

주일날 台東의 어느 교회에 참석해 특별순서를 가져 우리는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오기를 기

다리던 그 곳 성도들, 어느 쪽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얼싸안고 나누었던 기쁨, 감격의 눈물로 목이 메었다. 우리의 한국어 찬양을 듣고 뜻도 몰랐겠지만 우리 찬송 소리보다 더 큰 그들의 손뼉소리는 그대로 주님을 높이는 소리였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우리의 인술 교수님의 중국어(표준어) 설교, 그 곳 교회 목사님의 산지어 통역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았고 성도들과 말없이, 웃음으로 손짓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천국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또 더 깊은 동부로 급히 달려가 다른 교회의 오후 예배 동참했다. 우리 나라 농촌과 같은 실정으로 젊은이들은 거의 도시로 가고 노년층의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아주 흥겹게 율동과 찬양을 하고 있었다. 율동을 인도 하시는 장로님의 그 열정은 우리를 감동케 했다. 정확한 뜻은 모르나 복음을 심은 것이 30, 60,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의 율동을 우리도 열심히 그 곳 성도들과 짝지어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같이 어울려 율동과 찬양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한국하면 교회성장을 연상하리만큼 한국의 교회성장은 세계의 주목거리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몇%의 순수(?) 점수를 주실까?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대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순수성을 회복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台東에서 台北으로 돌아오는 길(대구-서울간 거리 정도)에 우리나라 새마을호 급의(일인당 약 20,000원) 기차를 탔는데 그들의 “여유문화(慢慢的)”는 기차에도 어김없이 나타나 6시간이 넘게 걸렸다.

대부분의 일행은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두 명의 형제와 나 외에 두 명의 자매가 남아 台北에 더 머무르기로 했다. 한국 유학생의 도움을 받아 사범대학 부속 건물의 숙소에 머물며 다른 유학생, 외국 학생들과 사귀는 시간도 가졌고 두 곳의 한인교회도 방문하여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에 참석, 한인들과 기쁨을 나누기도 하였다.

며칠 동안 한국 음식과 따뜻한 꿀을 찾느라고 꿀목을 누비면서 간간히 한국인을 만나고 접할 수 있었는데, 하루는 식당에서 한 한국 크리스찬 형제를 만난 두 자매가 그 기쁨을 나에게 전해주기도 했다.

유학생들의 또 다른 생활의 일면은 고국에서 만났더라면 친구가 될 생각을 안하던 사람들도 타국에서 만나면 쉽게 친해지는 것이다. 낯선 곳에서 외롭기 때문이리라.

발음만 세계 하면 대화가 가능할 듯한 익숙한 한자들, 분명 다르지만 우리와 비슷해 보이는 그들의 얼굴,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여유있는 그들의 언행. “인애로”, “성공로”, “자비로” 등 인간중심의 사회라고 느껴지

는 도로명과 함께 전 국민의 약 50%가 소유하고 있다는 오토바이의 행렬, 많은 승용차, 버스, 한 대 안에 다섯 군데쯤 번호가 적힌 택시들...

질주하는 차들을 보면 약간 겁이 난다. 우리 나라보다 무질서해 보이면서도 사람이 우선인 질서가 그 곳에 있었다. 택시 기사들의 친절은 소문대로 정말 세계 수준급. 기껏해야 “안녕하세요? 중국말을 잘 못해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정도의 말만 하고서 한자로 목적지를 알려주면 친절하게 그 곳까지 데려다 주는 그들에게서 깊은 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친절, 사랑으로 즐거운 종, 진리안에서 자유한 종, 겸손한 종의 삶이 주님의 사람들에게서 연속된다면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는 동안 믿는자를 보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불신자들이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

아무튼 야자수로부터 크리스마스장식까지, 열대지방의 과일로부터 겨울에나 볼 수 있는 있는 과일까지 이름도 모를 자연물로 풍부한 美麗島,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찾으면 좋을 곳이었다.

이 여행을 통해 중국 선교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

(본 선교회 회원)

각 부서 활동보고

☐교육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제4기 선교중국어연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종료되어 초급반 7명, 중급반 5명이 수료하였다.

제5기 선교중국어연수는 7월 1일부터 개강된다.

교육부에서는 이 때 사용할 교재인 「我的第一本聖經」, 「耶生生平故事」를 개발 중에 있다.

제5기 연수에는 중국선교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중국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번역부☐

격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번역부 모임을 갖고 있다. 함께 공부하는 교제는 <宗教與中國傳統文化>이다. 번역부원이 아니더라도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은 누구든지 환영한다.

번역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아래와 같다.

1. 직장을 갖고 있는 이민선, 이영숙, 한선옥, 김순임 회원이 계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2. 번역부원의 보강과 상근간사로서 번역부 간사를 보내 주시도록

3. 중역(中譯)팀 구성을 위해, 훈련을 받을 일꾼과 스태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도록

☐연구부☐

연구부에서는 여전히 기획사업인 “中國社會主義時期的宗教問題”라는 중국의 종교정책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가 모아진 책을 번역 중에 있다. 또 CCRC의 “中國與教會”에서 종교소식을 번역하여 신기로 하여 1991년 5~6월호인 83호를 번역하여 출판부에 원고를 넘겨 주었다. 그리고 이전에 번역하였으나 정리되지 않았던 소책자인 “중국기독교번역소사”의 정리 작업도 계속 중이다. 그리고 중국선교에 관한 특강을 선교회 간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려던 계획을 실행에 옮겨 ‘맑시즘의 대기독교관’과 ‘毛思想’중에서 모순론, 실천론 및 통일전선전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계속해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다. 연구부는 조만간에 정규모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실행에 옮기는 데 어려움이 있다. 모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정규모임이 시작되면 부원들에게 곧 모임소식을

알려드릴 예정이다.

☐출판부☐

출판부는 “중국을 주께로” 선교교회보 12호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발간하였다.

그리고 출판부에서는 「기독교와 중국」 화보집을 출판하기 위해 현재 타자중이다.

편집도안, 취재기자를 찾고 있으며 기도중이다. 달란트를 가지신 분은 망설이지 말고 연락(T. 594-8038)하시도록.

“최근중국동향”을 알기 위해 신문 스크랩을 협조해 준 박주서, 김순임, 박애숙 회원께 감사사를 드린다.

많은 출판부원을 보내주셔서 일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판부 정기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후원회☐

- 촛불 기도회 -

박지화 전도사를 중심으로 촛불기도회가 5월 23일 오전 11시에 박지화 전도사 집에서 기도모임을 가졌다.

I부 말씀은 마 7:7-12절, 기도는 김은혜 집사, 헌금기도는 한연순 집사 순으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의 단을 쌓았다. II부

에는 중국어문선교회와 복음전도단, 선교에 대한 개인 사역 등의 제목을 놓고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Ⅲ부에는 찬양과 교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특히 감사한 것은 박지화 전도사가 양육하고 있는 중국교포 김동선, 배체훈 자매가 동참하여 한층 더 쫓불기도회의 모임을 빛내 주었고 3명이 새 회원으로 가입했다. 쫓불기도회 회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지화, 김은혜, 한영전, 최

재복, 한연순, 유정숙, 김숙희, 윤오복, 박인화, 석애숙, 박예화, 심영효.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계속하여 부흥되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복음전도단☐

고국을 방문한 중국교포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마다 “교포 초청잔치”를 열어 복음을 전하고 있다.

6월 17일 8회째 집회를 개최하였다.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방한중국교포를 대상으로 20명 가량 양육할 예정이다.

양육리더를 위해 매주 목요일(오후 7:30~9:30) 마다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이경준 선생님이로 부터 양육훈련을 받고 있다.

중국교포 초청잔치와 양육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1. 적절한 생활 습관을 기르라: 규칙적인 기도, 성경 공부, 같은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2.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라. 요한복음 15장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와 생생한 관계를 경험적으로 배우라. 그런 관계에 있을때 생활과 사역에 열매가 나타난다.
3.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매일 기도하라. 주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줄 믿으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시32:8).
4. 지역교회에 등록하라. 지도자들과 장래 문제를 나누고,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계획한 것들에 대해 상담하라.
5. 정규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영역에서 봉사하라. 그러면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사람들과 교제하게 될 것이다.
6. 어떤 사역에서 본인이 가장 큰 기쁨을 얻는지 잘 관찰하라. 당신의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며, 미래 사역의 방향성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7.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라.
8. 교회 바깥-대학생 선교단체나 혹은 노방전도대나 외향선교회 등과 같은 초교파적인 단체에서 봉사할 길을 찾으라.
9. 만약 일반 전문직이나 사업을 위한 훈련 중에 있다면 그것을 끝내도록 하라. 동시에 선교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저축 계획을 세우라.
10. O.M.이나 YWAM 같은 데서 현장 훈련을 받든지, 혹은 성경학교나 선교사 훈련학교에 갈 계획을 세우라.
11. 선교 단체들의 운영 방식과 실체, 그리고 그들이 지원자에게 기대하는 자질이 무엇인지 알아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교 단체를 마음에 알려 주시도록 간구하라.
12. 선교 사역은 당신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라. 선교사는 영적인 후원을 해 줄 그룹이 필요하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조이선교회) 중에서〉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활동 상황

☐방송대☐

서울지역

신, 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중국선교의 사명을 가진 60여명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였다. 이들을 위한 도봉산에서의 조출한 환영 야유회는 91년 성경반의 실질적인 출범식이었다. 고진감래 끝에 학업을 이수한 5명의 졸업축하예배를 드렸고 또한 선배 중 세 분을 신입반 분반지도선생님으로 모셨다.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총무를 새로이 추진하여 활동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성경반의 또 하나의 과업은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연합사업의 일환으로 연합찬양집회를 개최하였다.

성경반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결실이라고 믿는다. 스승의 날 하루 만이라도 선생님들께 보답하고자 감사의 마음을 카네이션에 담아 가슴에 달아 드렸다.

성경반에 이산가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5년간의 성경반식구는 300여명에 달하지만, 현재 이곳을 지키고 있는 주인은 80여명에 머물고 있다. <신앙의 가족>을 <믿음의 이산가족>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가 떠나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잊지 말아야겠다.

91년도 7대 임원진들은 새로운 변화를 주어 잊혀가는 이산가족을 재회시키고자 한다.

지난 상반기를 잠시 조명하여 보면 화요예배를 중국어로 진행, 매주 주보 발간, 목요학습반 개설(신, 편입생), 부서별로 행사 주관, 매월 회원 생일 축하, 중국어성경반 연합사업시도(주관: 중국어문선교회), Tea Time운영, 총동원 집회(구회원 초청) 등이다.

이와같은 조그만한 변화를 시도하고 새롭게 변신하려고 하는 <중국어 성경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격려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인천지역

방송대 인천지역 성경반은 회원들의 출석이 비교적 안정되어 가는 듯 했으나 5월 초부터 각 학년의 출석수업과 자율학습 일자가 성경반 모임과 중복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입생이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1학년의 학습모임과 성경반모임이 겹쳐져서 여러번 날짜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계속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열심을 갖고 참석하는 몇몇 자매들의 꾸준한 출석과

기도로 점차 안정과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믿는다.

지난 4월 30일에는 서울지역 성경반이 주최한 찬양대회에 참가하여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서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5월 16일부터는 성경반 회원인 이해석 목사님의 교회로 모임장소를 변경하여 매주 화요일 오후 7:00-9:00까지 모임을 갖고 있다. 인하대와 방송대 인천 성경반 두 곳을 바쁘게 뛰며 지도하시는 김한성 간사님의 수고로 신입생들의 발음도 세련되어져 가고 있으며 이제 회원 배가운동과 아울러 훈련받고 쓰임받는 성경반으로 성숙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인천지역 성경반이 성장하기 위한 몸살을 잘 견디고 인내와 희생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름다운 교회를 제공해 주신 이해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모임장소: 동암역 북광장
성암교회(전화: 432-7490)

☐서울대☐

올해로써 세번째 해를 맞이하는 서울대 중국어성경반은 지난 3월 5일에 지난해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올해는 더욱 더 성숙된 모습을 지향하는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 1월 22일 안양 기도원에서 1991년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일년기획을 수립했으며, 3월에는 많은(?) 91학번 신입생을 맞이하여 더욱 더 활기를 띠게 되었다. 4월에는 고난주간 금요일에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뜨겁고 힘차게 기도했으며 4월 말에는 동송교회에서 개최된 중국어성경반 연합찬양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비전을 가진 많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가짐으로써 친목을 도모하기도 했다. 여름방학 이전에 기도원 M.T를 한 번 더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빈 강의실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상급생들은 중국어 성경 누가복음을 읽고 있으며, 신입생들은 초급 수준의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끝으로 중국어문선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신 여러 간사님들께, 또 각 대학의 여러 중국어 성경반에게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한다.

☐인하대☐

인천의 모임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적인 인하대 중국어성경반 모임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처음에는 숫자적으로 다소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었다. 지금은 참석인원이 조금 줄어 들었으나 흔들리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인하대 중국어성경반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방해요소들이 있었다. 강경대군 치사사건 이후로 불안한 학원가의 정서를 반영하는 조짐들이 나타나 잘 나오던 형제 자매들의 흔들림이 있어서 출석율이 떨어졌다. 또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연합으로 방송대에서 열린 중국어찬양대회에도 참여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사랑스러운 일학년 후배 두 명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중국어성경반 대가 끊기지 않고 잘 이어질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모임은 모든 학년이 다 학교에 나오는 날인 매주 목요일 5:30분부터 7:30분까지 성광교회에서 갖고 있다. 대체로 10명 내외의 형제자매가 모이고 있다. 이 성경반은 1부에는 요한 일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2부에는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서 공부한다. 초급은 중국어를 모르거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 공부하며 중급은 한경직 목사가 쓴 "기독교란 무엇인가?" 중국어판을 교제로 삼아 자유토론을 중심으로 공부하려고 한다.

이 성경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기도제목은 성경반을 거쳐 갔던 형제자매는 적지 않으나 꾸준히 나오는 형제자매가 적은 사정이 개선되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란다. 또 여전히 1학년이 부족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1~2학년이 중국어로 성경을 배워서 14억 중국을 향한 비전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길 바란다. 우리를 지도해 주실 지도교수님과 훌륭한 선생님도 더 보내주시고 준비된 자들을 불러 주시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또 고군분투하며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회장 이민중군이 주님의 힘과 지혜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성광교회와 양치호목사님의 사역이 더욱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바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신설된 중국어 성경반

▣방송대▣

부산지역

기도로 오랫동안 준비해온 부산지역 중국어성경반이 드디어 모임을 시작했다.

뜻있는 몇몇 회원들이 사전에 예비모임을 가진후 지난 5월 22일 한 회원의 가정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모임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이며 현재 출석인원은 7명이다. 점차 회원이 늘어날 전망이며 회원 증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아직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지 않고 회원가정을 순방하면서 「使徒信經·主禱文 外」, 「經文背誦」 교재로 중국어성경공부를 하고있다. 그리고 중국어 기초를 공부하면서 중국어로 찬양도 배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 65세의 한 老同學은 늘 중국어 유행가만 흥얼거리시더니만 중국어성경반에 가입한 이후 열심히 중국어찬송을 따라 부르셨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리라.

저희 성경반은 이렇게 시작이 미약하고 더러는 자신들의 사명을 발견 못한 학우도 있으나 중국어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는다. 또 방송대 중국어과 입학과 중국어문선교

회에 가입하여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부산지역 중국어성경반이 태어나기까지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신 기도 후원자들(박성주 교수와 중국어문선교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주안에서 기도로 서로 교통하며,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하여 지기를 바라며 부산지역 중국어성경반이 활성화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김 길 자

TEL. (051) 802-1612

▣이화여대▣

이화여대 증문학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국어문선교회와 서울대 중국어성경반 그리고 여러 형제 자매들의 오랜 기도의 결실로 드디어 이화여대에 중국어성경반 모임이 시작되었다.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가 "하나님은 그분에게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말한 것처럼 충분히 연약

한 상태 그대로 순종하기로 하였다. 지면을 빌어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첫모임은 5월 9일 목요일 오후 4시, 다섯명의 학우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후 교제를 가졌다. 학기 중이라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지만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동역자를 얻었고, 2학기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것 같다. 매주 목요일 오후 4:00~6:00까지 모임을 갖고 있으며, 1부에는 찬양과 예배, 2부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시편 23편을 읽고 암송한 후에 중보 기도와 교제를 하고 있다. 아직 1,2학년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분반은 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국어 찬양팀을 조직할 계획을 하고있다. 계속적으로 이대 중국어성경반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화여대가 Mission School이므로 여러 선교 단체가 있지만 중국어를 통해 지체들을 만나 삶을 나누게 하시고 중국 선교의 vision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중국어성경반 모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될 그날까지 각 대학의 성경반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기도드립니다.

* 연락처: 최 복 순

TEL. (02) 714-0586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찬양집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 할렐루야!”

91년 4월 30일 저녁시간.

동송교회에서 어두움을 뚫고 퍼져나오는 음률은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의 단합을 위한 기도의 소리, 바로 그 자체였다.

각 대학별로 중국어 성경공부의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동일한 뜻을 가지고, 동일하게 준비되어지는 젊은이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각 성경반의 회장들과의 인사도 없었고, 인원구성 및 실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필요성만을 인식한 채, 만남의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한 끝에 중국어문선교회의 부총무간사(김용배)를 통해 몇 대학의 성경반 회장들이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연합행사에 대해 의논하여 연합찬양집회를 갖게 되었다.

장소 및 간식과 행사의 준비는 방송대 중국어성경반에서 맡았다. 예상 밖에 인하대 성경반 전원이 인천 지역사정으로 참석지 못하여 아쉬웠다.

주로 중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집회는 독창, 중창 등 평소의 기량을 십분 발휘하는 듯 여유를 보였다. 중간 중간 방송대 중국어성경반 음악부 자매의 인도로 찬양과 울동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고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

이 행사를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앞섰지만 많은 학우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린다.

이번의 찬양집회는 주님의 이

름으로 모여 공동체 의식을 확 인하였다는 데 의미를 찾을수 있었지만 일체감을 위한 다음 계획이 없이 마쳐진것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날 참석한 이화여대 한 자매를 통해 이화여대에도 금년 중에 중국어성경공부 모임이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희소식을 들었다. 타 대학에도 <중국어성경반>이 점점 확산되어 중국어를 배우는 믿는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중국어로 말씀을 공부하며, 교제하고 더 나아가 중국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

<글·문승민

(방송대중국어성경반 회장)>

기도 편지

I. 중국을 위해서

1. 방한중국교포를 통해서 많은 성경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며 한국에서 간자체 중국어성경을 인쇄하여 중국에 보낼 수 있도록...
2. 한국교회가 매주 800명씩 들어오는 중국인 및 교포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조직적으로 전도, 양육할 수 있도록...
3. 많은 중국신도들이 극동방송(FEBC)과 세계의 소리(홍콩)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중국에서는 「남한교회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우리 나라 동북지역의 조선족 군중을 향한 '대한민국통일'을 선전하고 있다」고 하여 방송선교에 경계심을 더하고 있다. 중국정부를 거스르지 않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II. 중국어문선교회를 위해서

1. 중국선교를 위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많은 교회들에게 선교전략, 정보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2. 본 선교회 6월 정기세미나는 박선진 선교사(지구촌선교회)를 강사로 모신다. "타문화권 선교사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열리게 되는데 많은 회원이 동참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3. 선교중국어연수를 위하여
제5기 선교중국어 연수가 7월 1일부터 시작된

다.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강사 선생님의 건강, 지혜, 시간을 허락해 주시도록...

4. 각 대학 성경반의 발전을 위하여
 - ① 이화여대와 방송대 부산지역에서 중국어성경공부 모임을 갖기시작했다. 새로 시작된 중국어성경반의 발전을 위해...
 - ②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에서 젊은 선교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 ③ 성경반을 지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 ④ 외국인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에 중국어 성경반 결성이 확산되도록...
5. 연구간사와 출판간사가 대륙선교여행을 각각 떠난다. 건강과 발걸음을 지켜 주시도록...

III. 방한중국교포 전도집회 및 양육을 위해서

1. 저희 선교회에게 비전을 주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온전히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2. 이 사역을 위해 세워주신 사역자들이 주안에서 한 지체로 맡은 일에 충성 다하도록...
(단장: 박성주, 총무: 김용배, 서기: 노재은, 회계: 윤명자, 기획부장: 김일봉, 교육부장: 박지화, 봉사부장: 박정숙, 홍보, 안내부장: 정영철, 찬양부장: 허정희)
3. 한 주에 600~800명씩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교포들이 월요 초청잔치에 참여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4. 중국교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 물질, 봉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며 특별히 중국 여성정책과 신앙서적이 준비될 수 있도록...
5. 방한중국교포들이 이단종파(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등)에 현혹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앞서 복음을 먼저 접할 수 있도록...
6. 월요집회 때마다 이름없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영혼 깊이 채워지도록...
7. 방한중국교포의 마음이 세상 물질 욕망에서 떠나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도록...
8. 성도들의 사업체(식당, 회사 등)를 통해 전도의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9. 월요 초청잔치에 참여하는 교포들은 문화, 사상적 배경이 다르므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성령의 역사로 많은 심령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계기가 되도록...
10. 복음전도단 찬양팀을 세워 주신 주님께서 영감있는 찬양을 받으시고 많은 교포들이 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도록...
11. 6월 10일~7월 5일까지 결신한 교포들을 중심으로 양육하고 있다.
 - ① 이들을 올바르게 양육시킬 수 있도록 양육리더에게 말씀의 지혜와 성령충만을 주시도록...
 - ② 한 달 간의 집중 양육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 ③ 교포들이 온전히 양육을 잘 받아 중국에 들어가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겸허한 마음,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 주는 마음을 길러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자신에게로만 향하지 말고 이웃을 향해 열려 있게 해주세요.

자기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웃을 위해 즐겨 자신을 있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눈에 띄지 않는 어느 한 구석에 놓여져 잊혀진다 해도 기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그마한 마음의 아픔을 응시하면서 언제까지고 받은 상처를 생각하지 않는 굳센 마음을 길러 주십시오.

제 자신의 이해(利害)나 요구를 잊게 해주십시오.

혹 해를 입는다 해도 잃은 화목을 되찾기 위하여 자진해서 노력하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허영심이나 야심에 이끌려 이웃과 유리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굳은 마음을 길러주십시오.

이웃에게 보다 친절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누군가가 저를 멸시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이를 바칠 수 있는 과감한 마음을 제 안에 길러주십시오.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몇 마디로 조심스레 드러내면서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를 하나로 묶어가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말대답과 보복을 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을 길러 주십시오.

자신을 잊고 매일 이웃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력을 내 마음에 키워주십시오.

(J.갈로의 『사랑의 기도』 중에서)

알 림

1. 본 선교회는 다른 선교기관과 연합하여 지난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마다(10:30~1:30) CCC회관에서 방한 중국교포 전도를 위한 '방한중국교포 초청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 때 당일에 안내, 심방, 봉사, 물질후원, 기도후원 등 많은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기다립니다.
2. 6월 10일~7월 5일까지 결신한 중국교포를 대상으로 양육과정에 들어갔습니다.
3. 중국어연수 제5기가 7월 1일부터 초급, 중급 과정으로 나뉘어 개강됩니다.
4. 이경준 선생님을 모시고 매주 목요일 저녁 (7:30~9:30) 선교회 사무실에서 방한중국교포양육을 위한 양육리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기 원하는 회원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5. 5월 정기철야기도회에 중국 흑룡강성에서 온 김○○ 전도사의 은혜로운 간증시간과 이정미 자매의 선교여행보고가 있었습니다.
6. 이화여대와 방송대 부산지역에 중국어성경반이 조직되었습니다.
7. 극동방송 「나의 살던 고향」 프로에서 본선교회 '선교중국어연수' 과정을 취재하여 방송하였습니다.
8. 5월 25일 중국복음선교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간사 전원 및 몇몇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9. 5월 31~6월 1일 아시아 선교부(KOMF)에서 주최한 '중국을 알자' 세미나에 간사 전원 및 몇몇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10. 7월 1일~4일까지 모퉁이돌선교회 주최로 "중국·북한 선교사가 되려면..."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허락되는 회원들은 많은 참석바랍니다.

장 소: 총신대학 양지 캠퍼스

등 록 비: 25,000원

등록기간: 6월 1일~6월 25일

문의처: (02)796~8846

회원동정

1. 박성주 대표간사가 학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교수해외연수차 7월 11일~ 22일까지 소련, 동구를 둘러보기위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2. 본 선교회 회원인 이철 회원이 싱가포르선교사로 떠나기 위해 평산교회에서 6월 30일 파송예배를 드립니다. 7월 첫주 중 온 가족이 함께 싱가포르 떠날 예정입니다.
3. 본 선교회 김한성 연구간사가 중국현황을 둘러보기 위해 6월 중순경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4. 석귀회 출판간사가 학술세미나차 7월 말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5. 본 선교회 회원 소용하 목사(서부산교회)님이 중국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5월 17일 귀국하여 본 선교회에 중국대륙에서 제작한 찬송테이프를 기증했습니다.
6. 5월 9일 김정하 회원이 딸을 낳았습니다.
7. 안병국 교육부간사의 형님이 5월 13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소천하였습니다.
8. 박동화 회원이 4월28일~5월 20일까지 중국선교여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재 정 보 고 (4 월)

수 입	지 출
후원금 1,620,000	사 레 비(6인) 1,200,000
특별헌금(단체) 300,000	도 서 인 쇄 비 580,080
특별헌금(개인) 900,000	임 대 료 300,000
현지사역자들 위한 헌금 168,000	관리비및 각종세금 104,700
	교육비(편집) 100,000
	도서구입비 106,325
	통신비(전화) 40,030
	강사료(세미나) 30,000
	LTC지원금 280,000
	구 독 료 28,000
	후 생 비 80,880
	소 모 품 비 51,700
	우편발송료 82,560
	여비교통비 3,000
	컴퓨터프로그램 12,000
	선교헌금 10,000
	전기류수리비 10,000
	현지사역자들 위한예치금 168,000
	선교여행예치금 150,000
수 입 계 2,988,000	지 출 계 ₩ 3,337,275
전 월 이 월 -1,482,590	차기이월 ₩-1,831,865
잔 액 1,505,410	

♡ 후 원 자 상 황 (4 월) ♡

구규식, 강정애, 김구성, 김근수, 김승원, 김성순, 김학주, 김순임, 김길자, 김준미, 김승심, 김한성, 김현주, 김중기, 김원영(3,4), 김성근, 김정하, 김신봉(3,4), 김영숙(1-3), 김의득(1-4), 남경화, 노숙자, 남궁양석(10-4), 문정희, 박성주, 박지석, 박지화, 박종표, 박혜영, 박선남, 박순희(3,4), 박정숙(11-2), 박애숙, 박희정, 박주서(3,4), 방지거, 빈미정, 박문식, 박원석, 박정옥(2-4), 배종실, 서진, 서기원, 석귀희, 신흥식(3,4), 서옥희, 손화자, 안 천, 안병국, 양혜선(3,4), 윤명자, 윤연자(3), 이덕형, 이지순, 이은자, 이의선, 이인수, 이승열(2-4), 이영희(3,4), 이영숙, 이혜숙, 이훈숙, 이정희, 이은자, 임순자, 임중명, 임형규, 오영미, 전옥규, 장경순, 장혜량, 정재순, 정혜수, 정 일, 조성남, 최복순, 한승희, 황매화, 무명: 1명.

단체: 동승교회, 동부교회(대구), 평산교회, 방승대성경반, 신림교회, 충정교회, 촛불기도회.

◎특별헌금: 박성주.

◎감사헌금: 남경화, 이경준, 한승희(2月누락).

◎도서기증: 기행수필집(북방권)1권- 윤명자.

◎고속복사기기증및 특별헌금(단체):

권기호, 김만섭, 김순임, 김성순, 김일봉, 김용배, 김영숙, 김정하, 김치수, 김한성, 김준미, 남경화, 노재은, 박동연, 박상현, 박정숙, 박주서, 박지석, 박혜영, 백승복, 양현영, 양혜선, 유영자, 윤명자, 이민선, 이옥순, 이영희, 석귀희, 장경순, 정영철, 한나영, 한승희, 한중숙.

특 별 기 금 적 립 현 황 (4, 5 월)

명 목	이 월 수 입	지 출 잔 액
선교여행예치금	990,000 300,000	1,590,000
현지사역자들위한헌금	178,660 26,000	408,660
출 판 헌 금	1,201,000	1,201,000
사무실마련비	-1,490,000	-1,490,000
레이저프린터기대금	-1,800,000	-1,800,000
중국교포선교헌금	458,500	13,200 445,300
복사기구입지정헌금	500,000	500,000

◎복사기구입지정헌금(일부): 이영규.

재 정 보 고 (5 월)

♡ 후 원 자 상 황 (5 월) ♡

수 입	지 출
후 원 금 1,607,000	사례비(6인) 1,200,000
특별지정헌금 500,000	임 대 료 300,000
특별헌금(단체) 500,000	관리비(연료비외) 107,900
특별헌금(개인) 100,000	교육지원비(편집) 100,000
회 지 헌 금 100,000	교육부지원금 70,000
현지사역자를 위한 헌금 36,000	세미나등록비 100,000
	도 서 구 입 43,700
	강사료(세미나) 30,000
	우편발송료 10,770
	소모품비 64,880
	복 사 비 3,900
	구 독 료 (신문) 4,000
	선교회헌금 10,000
	후 생 비 50,910
	접 대 비 5,600
	통신비(전화) 43,940
	여비교통비 4,000
	철야예배보조금 23,000
	선교여행예치금 150,000
	현지사역자를 위한 예치금 36,000
	복사기예치금 500,000
수 입 계 ₩ 2,843,000	지 출 계 ₩ 2,858,600
전 월 이 월 -1,831,865	차 월 이 월 ₩ -1,847,465
잔 액 1,011,135	

구규식, 김근수, 김길자, 김승원, 김한성, 김구성, 김순임, 김성순, 김승심, 김현주, 김중기, 김준미, 김성래, 김정은, 김의득, 김혜현, 남궁양석, 노숙자, 남경화, 류수현, 문정희, 박문식, 박성주, 박종표, 박혜영, 박정옥, 방지거, 빈미정, 박선남, 박완신, 박애숙, 박순희, 박희정, 박원석, 박영자, 박지화, 배종실, 서 진, 서옥희, 서기원, 서민혁, 석귀희, 손화자, 신홍식, 안 천, 안병국, 윤명자, 이덕형, 이영숙, 이인수, 이해숙, 이지순, 이은자, 이정희, 임순자, 임종명, 오영미, 전옥규, 정재순, 정혜수, 장경순, 조성남, 정 일, 황매화, 한승희, 홍성배, 신반포. 무명: 2명.

단체: 동부교회(대구), 동송교회, 방송대성경반, 신림교회, 평산교회, 충정교회, 촛불기도회.

◎ 특별헌금: 김중인(세강).

특별헌금(단체): 김용배, 김준미, 김순임, 김성순, 남경화, 박주서, 석귀희, 양혜선, 이영숙, 정영철, 한승숙,

◎ 회지헌금: 평산교회.

◎ 도서기증: 논문집 1권(치유 선교적 측면) - 이심송 집사.

성경강해 2권 - 방지일 목사.

♠ 편집후기 ♠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몫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3장15절)

어지럽고 혼탁한 중에도 어김없이 여훈은 찾아 왔습니다.

“중국을 주께로” 12호 편집을 마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호에 실렸던 “중국어 중국전통문학”을 계속 연재할 계획이었으나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독자들의 여훈을 반영해서 실지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이번호부터 “중국의 연속풍물이야기”를 연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중문과 교수 칼럼”

칼럼 신선했습니다.

각 대학에 중국어성경반은 본 선교회로 활동 상황을 알려주시면 그것을 회지에 소개함과 아울러 필요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출판부에서는 회지에 실을 회원 원고측 모집 하고 있으니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간증, 기행문, 수필, 기도문, 시 등)

그리고 중국어문선교회를 상징하는 마크를 공모합니다.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끝으로 여러가지 바쁜중에도 회지가 나오기 까지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드립니다.

아울러 “중국을 주께로” 회지 발간을 위해서 지도편달해 주시고 이 회지가 좋은 선교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